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2365.10	코스닥	710.82
	(+5.57)		(+1.05)
금리 (미국 9년)	3.466	환율	1245.80
	(-0.006)		(-0.40)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일인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쇼핑관광축제이다.

/뉴스시스

D램 값 끝없는 추락 DDR5 보급이 관건

업계, 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1분기 D램 적자 기정 사실화

인텔, 4세대 서버 CPU 출시
속도 2배, 소비전력 10% 절감
보급 본격화로 가격 반등 기대

D램 가격이 결국 1달러대로 주저앉고 있다. 앞으로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 DDR5 보급 속도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8Gb 2666MHz D램 기준 현물 평균 가격은 10일 이후 1.9달러대로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한두달 안에 평균 고정 거래 가격도 1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업계에서는 D램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고한 상태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최대 18% 하락할 것으로 봤다. 지난달 고정 거래가격은 2.21달러, 이미 현물 가격은 이같은 하락 전망을 충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도 가격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

행은 올해 반도체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1.5%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는 1분기 D램 적자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분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반도체 업체가 적자를 확정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에서는 삼성전자조차 4분기 적자가 유력시된다.

이번에도 희망은 새로운 규격 DDR5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다운사이클에서도 각각 차세대 제품인 DDR3와 DDR4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반등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리거’는 인텔 서버용 CPU 출시였다. 2012년 5월, 2016년 7월에 인텔이 새로운 D램 규격을 지원하는 제논을 내놓은 직후부터 D램 가격은 하락을 멈췄다.

인텔은 10일(미국 현지시간) 서버용 CPU 주력 제품인 4세대 제논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했다. 이미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공급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버용 CPU 출시는 여느때보다 시장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옴디아에 따르면 서버용 D램 매출 비중이 34.4%로 모바일(30.5%)을 앞지른 상황, 데이터 센터 업계 성장과 대기 수요 등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새로운 규격은 성능 뿐 아니라 전력 효율을 크게 제고한 만큼,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개발한 12나노급 D램.

m-커버스토리

‘방탄’·‘北드론’ 대처로 멈춘 임시국회

길 잃은 민생법안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연장 등
‘일몰법’ 개정안 처리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어서 숨통이 다소 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 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의이 재적 299인, 재석 215인,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쟁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팔면 1주택자 간주

시장 침체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취득·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날부터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뒤 2주택자가 됐지만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 의사가 분명하지



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주택을

만 2년 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졌다.

앞으로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尹 국정수행 ‘긍정’ 3%p 상승한 37%
… 부정평가 2%p ↓
▲인권위,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결론 지연

/사진 뉴스시스

▲김기현 “수도권 당 대표론은 전국 정당
에 지방색, 매우 부적절”
▲외교부, 日 기업 대신 재단 통한 강제동
원 피해 배상안 내놔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유효…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뀌어”
▲심상정 “중대선거구제, 양당 담합 가능
성… 다당제 가야”

/사진 뉴스시스

삼성·LG ‘협력사와 따뜻한 명절’… 2조 대 납품대금 선지급

삼성 11개 관계사에 2주 앞당겨 2차 협력사에도 대금 현금지급 이재용 “어려운 상황 함께 극복”

LG 1.2조 상생협력펀드 등 운영 설 맞아 소외이웃에 생필품 전달 “고금리에 어려운 협력사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LG 대표이사 회장

재계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설 연휴를 맞아 아낌없는 상생 노력을 이어갔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11개 관계사가 1조400억원 규모 물품 대금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17개 관계사는 20일까지 임직원 대상 설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고 지원에 나선다.

삼성에는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교육 등 물심양면으로다. 상생·물대 펀드 운영과 인센티브 지급, 스마트공장 지원에 이어 컨설팅에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으로 국가 차원 기술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협력사에도 30일 이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대금 문화를 개선하는데도 앞장서왔다.

최근 급상한 경기 침체속 설 명절에도 삼성은 대대적인 상생 활동을 단행

하며 대기업과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사회도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번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특산물,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제품까지 임직원들에 판매하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상생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에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장터 참여 중소기업 중에는 ‘천년 홍삼’과 ‘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가 대표적이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기업들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표준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데 성공했으며, 이번 명절에도 몰려드는 주문을 차질없이 소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이재용(오른쪽 두번째)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8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광주 소재 ‘디케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김미자 천년홍삼 대표는 “삼성의 명절 장터와 스마트 비즈엑스포 등 다양한 판로개척 프로그램으로 이번 설에 1800박스 이상 판매 했다”며 “지난 설 대비 60% 이상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49개 중소기업체가 참여해 한우와 굴비 등 100여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도 물품 구매를 독려하고 휴게 공간에 주요 상품을 전시하는 등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와 소상공업체 판로를 넓히며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앞으로도 ▲공장운영시스템 및 생산/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E

SG 경영 지원 ▲마케팅/홍보 ▲기술경영 등으로 컨설팅 범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LG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 1조 2000억원 규모를 최대 11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도 상생협력펀드 등 1조2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5년에는 상생결제 시스템 혜택을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LG 계열사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계획도 세웠다. LG전자는 ‘기

부 식단’으로 조성한 기부금으로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 장애 아동에 설 음식과 학용품,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는 사업장이 있는 여수와 대산, 나주와 구미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노인 복지시설, 독거 어르신에 명절 선물과 식료품을 전달한다. LG생활건강도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농어촌에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LG헬로비전도 강원도 원주시 지역 아동센터에 ‘마음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오픈스튜디오로 초청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G 관계사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납품 대금 2조3766억원을 최대 27일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협력사까지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하며 상생 생태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SK그룹 등 대기업들은 올해에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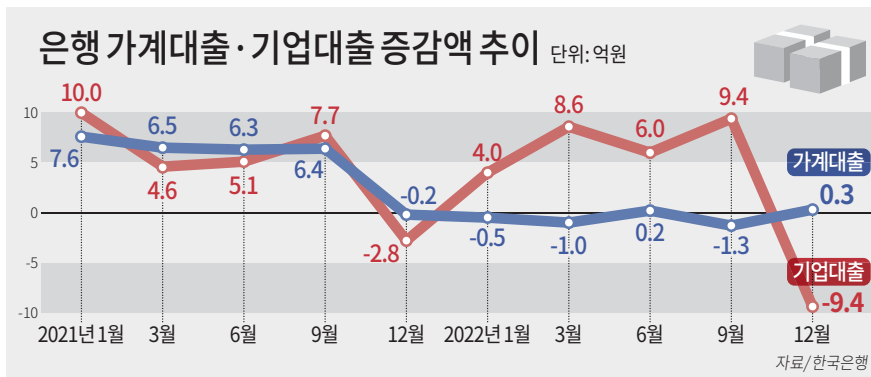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감소

한은,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지난해 잔액 1058조, 전년비 2.6조 ↓
기업대출 전월대비 9.3조 줄어 들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8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2004년 통계속보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22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높아진 금리수준과 규제가 이어지며 가계부채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해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12월 기타대출 잔액은 257조9000억원으로 대출금리 상승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지속되며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8조823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전세거래 둔화로 전

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한 반면, 집담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분양·입주물량은 12월 들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4만4000호, 입주물량은 3만5000호 늘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9조3551억원 감소한 1170조823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재무비율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가 축소하면서 3조3000억원 줄고, 개인사업자대출도 8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은행 수신은 정기에금을 중심으로 한달 새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재정집행에 따라 지자체가 자금을 인출하고, 은행간 수신경쟁이 완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자금 유입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정기에금은 전월 대비 15조1000억원 감소했고, 수시입출식예금은 가계의 연말상여금 예치 등이 늘며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한달 새 4조6000억원 줄었다. 은행이 연말 BIS비율 관리를 위해 환매하고, 국고자금이 유출되며 머니마켓펀드(MMF)는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세수 50조 호조에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나랏빚 1000조 넘어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50조원 넘게 견뎠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1000조를 넘어선 나랏빚은 1045조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견인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더 견뎠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가 15조원 더 견인 121조6000억원 들어왔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더 견인 영향이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32조6000억원 더 견인 1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이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세의 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이 견뎠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원 늘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SK하이닉스 “DDR5 공급 위해 협업 중”

>> 1면 ‘D램 결국 1달러대로’서 계속

DDR5 D램은 속도가 DDR4보다 최대 2배까지 빨라질 수 있으면서 소비전력을 1.2V(볼트)에서 1.1V로 10% 가까이 줄이는 등 전력 소모를 20% 가량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사파이어 래피즈도 W(와트)당 성능을 평균 2.9배나

높이면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다. 사파이어 래피즈를 쓰려면 DDR5 D램 도입도 필수.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찌감치 DDR5 D램을 양산 중, 삼성전자는 12나노급 D램을 16Gb DDR5 전용으로 개발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에 직접 성능을 인증받으며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다. 10나노급 4세대(1a) DDR5 서버용 D램으로 인텔 신형 CPU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것. 사파이어 래피즈에서 작동하는 DDR5 D램 성능과 특징점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DDR5 백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류성수 부사장(DRAM 상품기획담당)은 “인텔 사파이어래피즈 출시에 맞춰 다수 고객사에게 DDR

5를 공급하기 위해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로도 지속 성장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DDR5 D램이 순식간에 보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운 수준. 동작속도가 4800MHz인 1세대 제품만 나온 상태라는 것도 시기상조일 수 있는 이유다. /김재용 기자 juk@

“미래 모빌리티 리더”… 정의선, 세계 車산업 영향력 ‘1위’

〈현대차그룹 회장〉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 공개
현대차그룹 새로운 차원 끌어 올려
실천적 리더십, 전동화 전력 차별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글로벌 자동차전문지 모터트렌드는 12일 정의선 회장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모터트렌드는 이날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을 공개하고, 정의선 회장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모터트렌드는 매년 모터트렌드 에디터들과 자문위원들의 엄격한 평가와 비공개 투표를 거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50인의 파워리스트를 공개한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1인을 ‘올해의 인물’로 명명한다.

지난 1949년 미국에서 창간된 모터트렌드는 자동차 분야 최고 유력매체로 매월 100만 부 이상 발행되는 잡지와 온라인판 등을 통해 업계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터트렌드는 정 회장을 ‘가장 영향력 인물’로 선정할 이유에 대해 “정의선 회장은 세계와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평소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사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모두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은 물론, 로봇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스마트시티, 수소에너지 솔루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모터트렌드는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 최고경영자(CEO)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은 현실적이면서도 친근한 혁신가이자 비저너리로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며 “그의 비전, 위대한 기업이 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회장이 추구하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그리는 큰 그림은 데이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공학뿐만 아니라 무수

히 많은 모빌리티 솔루션을 아우르는 스마트시티까지 망라돼 있다”고 소개했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의 실천적 리더십과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은 자율적인 권한 부여, 효율적 의사소통 등에 기반해 회사 경영진들과 구성원들이 담대한 도전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의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모터트렌드는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시작했다면 현대차는 다양한 모델과 스타일, 가격대를 갖춘 멋진 전기차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2025년에 E-GMP의 성공을 이어갈 새로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시설을 설립해 더욱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주행거리 확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제품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모터트렌드는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는 계속해서 장외 흐름을 날리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차량들은 눈

길을 사로잡는 디자인, 품질,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경쟁자들이 맞서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와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모터트렌드의 ‘2023 올해의 차’와 ‘2023 올해의 SUV’를 각각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아이오닉 5’와 기아 전용 전기차 ‘EV6’가 각각 ‘2022 세계 올해의 차’와 ‘2022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 데 이어 ‘EV6’가 11일(현지시간) 유틸리티 부문 ‘2023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서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최고 권위의 글로벌 3대 올해의 차를 모두 석권했다.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에는 정의선 회장 외에도 루크 동커블게 현대차그룹 최고창조책임자(CCO) 사장(3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10위),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 부사장(28위), 카림 하비브 기아디자인센터장 부사장(44위) 등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는 매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2위),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회장(4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42위) 등도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능력·CDMO 포트폴리오 확대”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대 축 중심의 성장 이어갈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능력·포트폴리오·지리적 거점’을 3대 축을 설정하고 이를 확장해 2023년 글로벌 선두 바이오 기업으로 본격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올해 4공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제2바이오 캠퍼스를 통한 생산능력 확장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항체약물접합체(ADC)·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의약품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글로벌 고객사가 밀집한 주요 도시에 거점을 구축하며 3대 축 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메인트랙에서 발표하고 있다.

다.

존립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메인트랙’에 초청받아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 및 투자

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메인트랙 배정을 받은 이후 한국 기업 최초로 7년 연속 메

인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연단에 선 존립 대표는 현재 부분가동 중인 4공장을 올해 성공적으로 완공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해 시장 기회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공장(24만 리터)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60만 4000리터로 글로벌 압도적인 1위에 오른다. 현재 8개 고객사의 11개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26개 고객사와 34개 제품의 위탁생산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제2바이오 캠퍼스 구축논의를 본격화한다. 이곳에 7조 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및 차세대 의약품 기술 기업의 육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ADC, 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한다. ADC 생산 설비는

현재 준비 중이며, 2024년 1분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CDO 부문에서도 새로운 자체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삼성물산과 함께 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 기업에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0년 개소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구개발(R&D) 센터에 이어 지리적 거점 확대도 지속할 예정이다. 보스턴에 이어 최근 주요 빅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도 세일즈 오피스(영업 사무소)를 구축하여 고객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존립 대표는 “앞으로도 삼성의 바이오 사업 비전과 로드맵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2030년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플랫폼 끼워팔기 등 금지…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 제시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고려요소를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쉐플링 효과 등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제한성 평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시장을 획정할 경우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하는 지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무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간 가치의 교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차네트워크 효과 등 ▲문지기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동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도 이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상 역의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측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뉴스시스

새해에도 이어지는 여야 강대강 찬밥 된 '민생경제' 누가 돌보나

1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공전'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1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공전이 었다. 민생 관련 법률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여야가 양보 없이 다투는 사이에 민생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도 경제·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진단한 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며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한 채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본회의 개최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소한 각 상임위라도 조속히 개최해 주요 현안 보고와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하는데 대해 “방탄 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규정된 뒤 박 원내대표 발언에 반박했다.

여야는 서로가 주장하는 민생 관련 법률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상대당이 주장하는 민생 관련 법률법에는 반대하면서, 서로의 주장만 이어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 당시 “전국 603만명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 당시 “안전운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진표 국회의장

“우리사회 ‘강한 원팀’이 돼야 그래야 고난의 파고 헤쳐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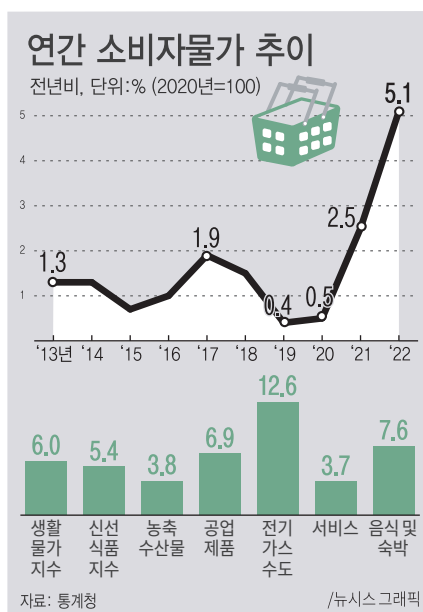
민주당 “상임위 열고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 “방탄국회 회피위한 것”

소비자 물가 24년만에 최대 상승 ‘강통전세’ 310억 빌라왕 사건 등 국회 입법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제는 물류 시스템에 대해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 과정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문제 역시 민주당은 영구적 지원, 국민의힘에서는 한시적 지원을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힌 사이,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2021년 대비



5.1% 상승한 수치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거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144개 가격을 조사한 생활물가 지수 역시 2021년 대비 6% 올랐다. 이 역시 1998년(11.1%) 이후 최고치다.

최근 임차인에게 ‘강통 전세’로 보증금 약 310억원을 가로챈 빌라왕 사건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입법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전세가율 70% 넘지 않게 규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제공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 12% 지연이자 부과 및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는 가운데 민생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두고 ‘대화와 타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본래 대립과 갈등을 서로 대화, 양보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정리를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같이 토론하고 다뤄 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야, 정부와 국회가 인정을 해 주는 전제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일이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직회부 방식으로 강행처리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도 “협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국회의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화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의원 사이에 굉장히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주당 “안보·민생 발목, 비정상적 국정 바로잡아야”

>> 1면 ‘방탄·北드론’서 계속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긴급하게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두고 “산적인 민생 현안을 외

면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며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가계부채·물가지원금 등 30조 규모 민생지원 추진돼야”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담화

민생·경제 위기 3대해법 제시
경제라인 포함 내각 교체 강조
“폭력적 국정운영” 尹 정부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해법을 내놓고 자신의 아젠다인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경제 3대 해법도 내놔다. 이 대표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추진, 경제라인 포함 내각 대폭 교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계획’엔 취약자와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과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겼다. 또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물가지원금·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거 불안 해소책도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이외의 관계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구상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넘어 주거,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만 8세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 “기본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주거·금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부 태도가 2차가해”… 생존자·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2차 공청회

생존자 극심한 트라우마 호소
“이상민·한덕수 발언 무너져”
진상규명만이 해답 일목소리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159명의 희생을 막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2차 공청회를 열고 당시 생존자, 유가족, 지역 상인의 진술을 들었다. 참사 당시 이태원을 찾았다가 인근 상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 김초롱 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김 씨는 “저에게 2차 가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며 “참사 직후 이 장관의 브리핑을 보며 무너져내렸다.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을 눌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주 전 고등학교생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에 작별을 고했을 때, 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생존자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생존자의 진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뻔 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를 찾았고 약의 용량을 늘렸다. 한 총리가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치유는 없다”면서 “결국 바뀌지 않은 사회와 쏟아지는 망언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친오빠를 잃은 조경선 씨는 참사 이후 정부의 무책임한 유가족 대응과 정보 공유 미흡을 질타했다.

조 씨는 “부실 수사와 수사 방지에 진절머리가 나고 치가 떨린다. 지금도 오빠의 행적을 모르고 우리 오빠를 수사해주는지 알 수 없다”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 씨는 “2차 가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에게 있어 제일 큰 2차 가해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책임을 다했다는 정부와 공

무원 그리고 몇몇 일부 의원”이라며 “국가가 해선 안 되는 이간질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이 왜곡되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간질로 입은 상처로 저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어떤 응급조치를 받았는지,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려줬다면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할 일도 전혀 없었을텐데 성숙하지 못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간질을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주호영 “시중銀, 예대이율 합리적 설정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 은행에 합리적인 예대 이율

을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지난 10일 기준, 3.89~4.27%)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지난 10일 기준, 4.93~8.11%) 차이가 큰 데 따른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지난해 11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포인트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이 8%를 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이 2021년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이 이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 은행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대통령실 ‘국민제안’

민원·청원 2.5만건

코로나·부동산 다수

‘국민제안’ 보고서 첫 발간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 청원(32%)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5.0%, 50대 24.1%, 40대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내외 사업 혁신, 지속가능 성과 도모… ‘업계 2위’ 도약

2023 보험사 경영전략

③ 신한라이프

성과·능력 바탕 조직개편 단행
업계 최초 넷제로 보험연합 가입
신한생명+오렌지 전산통합 완료
베트남 시장 진출 여부도 ‘촉각’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회장을 새 수장으로 내정하면서 신한라이프 또한 4년 만에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했다.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오렌지라이프 부사장과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 부사장을 역임했다. 세대교체와 함께 보험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사장은 이달 취임사에서 ‘도약’과 ‘혁신’을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보수적인 영업을 예고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과거 오렌지라이프 대표직을 수행하던 시절부터 강조한 혁신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흔들림 없는 사업 혁신 전략 추진 ▲지속 가능한 성과 도모 등을 통해 생보업계 ‘톱2(TOP2)’ 자리에 오르겠다는 포부다.



신한라이프, ‘팀 라이프(Team LIFE) 2023 발대식’에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이 취임인사와 함께 비전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양사 통합 이후 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 혁신과 지속 가능 경영에 방점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조직개편과 함께 경영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혁신에 무게를 두고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15개 그룹은 12개로 줄었으며 14개 본부는 16개로 늘렸다. 77개 부서는 67개로 압축했다.

경영진과 팀장급 인사에서는 출신, 학력,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오로지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실제로 임원과 팀장의 평균연령은 각각 49세와 44세로 지난해 대비 각각 3세씩 낮아졌다.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지난해 24%에서 32%로 올랐다.

이 같은 혁신 기조는 지난해 이룬 디지털 전환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신한라이프는 스마트앱어워드 2022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사 플랫폼인 ‘스퀘어(SQUARE)’가 있다. 스퀘어는 단순 보험 소개뿐 아니라 운세보기,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담아 플랫폼으로 형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ESG경영 기조도 강화했다. 보험업계 최초로 넷제로 보험 연합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관리 및 인수, 상품·서비스 개발, 자산 운용 등 일련의 과정에 탄소 중립 방안을 시행한다. 신한라이프의 ESG경영 강화 기조는 ‘개인의 가치관’에 지갑을 여는 MZ세대의 이목을

끌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업무처리 과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라이프는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양사의 전산시스템 통합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2020년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을 진행하고 전산시스템 통합에만 22개월이 걸렸다. 과거 양사가 수집한 소비자 데이터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해외시장도 혁신으로 이끌까?

지난해 신한라이프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첫발을 뗐다. 베트남 호찌민에 1호점 출범했으며 하노이에 2호점을

열었다. 베트남 시장은 금융업계 전반이 진출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베트남 진출에 있어 후발주자인 만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여부가 수익 창출의 한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의 베트남 시장 진출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진출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영업 창구를 확대했다. 어린이용 독립 보험상품과 방카슈랑스 등 판매 채널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베트남의 인구는 9895만명으로 1억명에 달하며 매년 7~8%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보험 가입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베트남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 개발과 영업 채널 확장을 통한 선점이 중요한 이유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인 자본금 2조3200억동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의철 법인장과 주재원 및 현지 채용 직원 등 약 40명으로 출범했다.

이 사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금지를 모아 생보업계의 톱2(TOP2)를 넘어 일류 신한라이프 달성이란 위대한 꿈을 신화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성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금리 ‘고정형’ 늘리고, ‘찜빔’ 내리고 … 전세대출 지원 실효성 ‘글썄’

당국 전세대출 지원방안 마련 속도 은행권, 금리 인하 등 동참 잇따라
예금금리 대비 인하 폭 낮아 지적

최근 금융당국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전세대출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낮은 금리 인하폭과 시중은행의 자율성에 맡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출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로 인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20만8315) 중 월세 거래량이 41.8%를 차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금리 고정형 상품을 다른 은행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도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에 대한 의견을 다음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

를 시중은행에 강요할 순 없다”며 “은행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김에 따라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일제히 동참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주택금융

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낮게 책정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100% 보증 확대와 관련 “전액 보증은 지나치다”며 “갭투자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당국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를 기존 연 0.80% 포인트(p)에서 연 1.1%p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수 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p에서 연 0.60%p로 확대한다. 특히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담보증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0.95%p까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총주택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

p까지 낮아진다.

앞서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일부 대출상품 금리를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원큐신혼부부전세론, 원큐 다둥이전세론에 대한 금리를 6개월물 금융채 기준 0.5%p 낮췄다. 원큐우량전세론, 원큐주택담보대출, 원큐신용대출은 상품별로 연 0.1%~0.35%p까지 금리를 낮춘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수준은 급등한 금리와 예금금리 인하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3.98%로 떨어졌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5%에 머물렀지만, 금융당국이 수신경쟁을 자제하도록 압박하면서 4% 초반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연 3%대는 4대 은행 중 처음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갈 곳 없는 저신용자… 인터넷은행 대출 취급액 급감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미흡
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인터넷은행들의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출 보릿고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신규대출 잔액 합계를 보면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7.9%가 하락했고, 9월에는 31.2%, 10월에는 25.2%가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신규취급액의 경우 68억 원으로 지난해 1월(117억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고, 신규계좌수 역시 896좌에서 416좌로 줄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 포용하지 못하는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사채 시장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탄

생했다.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과 포용금융을 통한 ‘금융권 메기’ 역할까지 기대했지만 저신용자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적했다.

평가위는 “인터넷은행들의 영업 결

과, 금융 편의성은 제고됐지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이 해당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터넷은행 3사의 여신 잔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여신 잔액은 전달보다 244억원 증가한 27조 8877억원, 케이뱅크는 2200억원 늘어난 10조 7700억원이었다. 토스뱅크는 3분기 7조 1000억원에서 12월(추정치)말에는 8조 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중신용자 개인사업자 대출과 주택담

보대출 등에서 여신 잔액이 상승해 전체 여신 잔액이 높아진 것이다.

이자이익 증가에 따라 순이익은 대부분 성장하고 있지만 둔화된 여신 성장 및 플랫폼 수익을 비롯한 수수료 수익이 부진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체 인터넷은행의 고정이자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은 2021년 말 0.29%에서 지난해 3분기 0.4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은 0.23%에서 0.21%로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건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

오후 2:05

[Web발신]
 [OO보건소] 031-XXX-XXXX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안내드립니다
 시간 : 10월 5일 수요일 19:00~20:30
 장소 : 보건소 2층 대강당
 선착순 참여로 참석 여부 회신주세요

오후 2:06

네. 아이 동반도 가능합니다

수원특례시
민원접수

오후 2:06

아이와 함께 참석이 가능할까요?

오후 2:07

네~ 참석할게요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10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2.09.30일자 기준)

DIGICO KT

일진 품고, 고부가 제품 확대… 롯데, 내실 다지기 총력전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적자에도
건설 5000억 대여금 조기 상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도 마무리
2차전지 소재·수소 사업 다각화
청정수소 유통… 매출 5조 목표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의 행보가 주목된다. 올해도 석화 시장의 업황 부진이 겹쳐지지만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하고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마무리 지으며 내실을 다지는 도약을 예고했다.

롯데케미칼은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케미칼 매출액 전망치(연결기준)는 22조4843억원이다. 롯데케미칼 측은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신규설비 가동 등으로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건설의 5000억원 대여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롯데케미칼의 재무여력이 더욱 커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올해 수익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도 순조롭게 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의 완전 자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가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약 2

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안팎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동박 제조업체 2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조7668억원, 영업손실 915억원을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설 정비보수를 마쳤지만 가동률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환율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매출 감소까지 겪는 등 이중고를 헤쳐나가고 있다.

다만 석화학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황은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개발도상국 중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올해는 힘들더라도 2년 뒤부터는 업황 회복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2월까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배터리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로 수소·리사이클링 등 사업으로 다각화해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보급과 탄소저감 성장을 위한 수소 사업도 추진하고 중이다.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입, 120만톤(t)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활용해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그룹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회의’ 참석한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CES에 참석해 수소, 배터리,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롯데케미칼의 미래 사업을 알렸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골칫덩이 해양폐기물,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LG화학-넛스파, ‘자원순환’ MOU
생태계 보호, 탄소배출 저감 두तो기

LG화학이 바다의 골칫거리인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든다.

LG화학은 12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자원 순환을 선도하는 업체 넛스파(NETSPA)와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화학은 24년 가동 예정인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열분해유 공장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페어망으로 만든 열분해유 원료

/LG화학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넛스파가 해양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을 선별·가공해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이번 자원순환파트너십을 통

해 해양 생태계보호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국내 기준 연간 약 5만 톤이 발생하는 데, 폐기 비용으로 인해 수거가 원활하지 않고 또 수거되더라도 처치가 곤란해 방치되거나 주로 소각되어왔다.

양사는 이를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제품 대비 탄소소 3배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르노코리아 협력업체 “수출 지원책 마련해 달라”

정부 지원방안 촉구 호소문 발표
선사 수급·물류비 인상에 위기감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이 선사 수급과 물류비 인상에 따른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르노코리아자동차 협력업체를 대표하는 ‘르노코리아자동차협력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자동차 수출위기 국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정부와 부산시, 지역 경제계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 반도체 부품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많은 이슈를 극복해 왔지만 최근 배 이상 높아진 수출 물

류비로 어렵게 버텨온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3년 넘게 줄어든 수출입 선사 수요가 코로나 엔데믹 과정에서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수출입 물량을 최우선으로 해상 수출입 물류 지원에 나선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초과 이익을 달성한 프랑스 선사의 운임을 동결하거나 할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기업 수출을 위한 선박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정부도 수출 물류 지원에는 나서고 있지만 현지차처럼 전용 선사를 갖추지 못한 르노코리아는 안정적인 수출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고운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운 기자

1.8배 빠른 PC용 고성능 SSD 출시

삼성전자, 업계 첫 5나노 공정 적용
전력효율 전작대비 최대 70% 향상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5나노 기술을 도입한 PC용 SSD를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PC용 고성능 NVMe SSD ‘PM9C1a’를 양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7세대 V낸드에 5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해 자체 설계한 신규 컨트롤러를 조합해 만들었다. 5나노 공정을 SSD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 효율은 전작보다 와트당 최대 70% 가량 향상됐다. 노트북 PC 절전모드에서는 소비전력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 읽기 속도는 1.6배, 연속 쓰기 속도는 1.8배 빠르다. PCIe 4.0을 지원한다.

보안 솔루션도 자랑거리다. 국제 보안 표준 기구인 TCG 암호아이디 기술 ‘DICE’ 표준으로 공급망 해킹 방지와 디바이스 인증, 펌웨어 변조 방지를 위



한 증명 기술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라인업을 M.2 규격으로 256GB와 512GB, 1TB 등 다양한 용량으로 지원해 글로벌 고객들과 함께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솔루션개발실장 송용호 부사장은 “PM9C1a’는 고성능·저전력·보안성 등 PC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PC용 SSD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SK하이닉스, 하반기 ‘흑자’ 유력

임직원 성과급 100% 지급 결정
영업이익 흑자 기록시 지급 공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흑자가 확실시된다.

SK하이닉스는 12일 임직원에 PI 100%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PI는 반기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최근 SK하이닉스는 하반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경우 하반기 P

I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 1조 6556억원을 기록했다.

사측이 PI 지급을 확정하면서 4분기 적자폭이 이를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는 다음달 2일 4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컨퍼런스콜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해외가 인정한 IP… 카카오엔터, 1.2조 역대최대 투자 유치

유수의 국부펀드 등 해외기관 투자 차별화된 IP밸류체인 경쟁력 증명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 가시화 K컬처 주도 글로벌 엔터 자리매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자를 바탕으로 ‘비욘드 코리아’ 비전 본격화에 앞장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유수의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다. 이는 역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사례 중 최대이며,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자본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뤄진 상당한 규모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이끈 카카오 배재현 투자거버넌스총괄 수석부사장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임에도, 유수의 국부펀드 등 해외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엔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화된 IP밸류체인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 시장에 증명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투자유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미디어-뮤직 부문을 아우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니크한

IP 밸류체인과 성장 저력을 국내외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만여 개 웹툰, 웹소설 오리지널 스토리IP와 7만여곡 음원 라이브러리, 아이돌, 보컬리스트, 배우 등의 아티스트들은 물론,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 역량,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한 글로벌 유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친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스토리, 미디어, 뮤직 등 각 사업 영역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엔터산업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왔다. 하나의 IP가 다양한 콘텐츠로 진화, 확장할 수 있는 IP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유치로 확보한 재원을 글로벌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카카오 공동체의

미래 비전인 ‘비욘드 코리아’를 가시화하고, K컬처 열풍을 주도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리딩 컴퍼니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거대글로벌 엔터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며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내실 있는 글로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각 부문의 글로벌 청사진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스토리 부문은 북미와 아세안, 중화권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으며, 향후에는 각 지역에서 빠른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본사 주도의 리더십을 통한 공격적인 IP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선봉에 서는 건 유수의 K웹툰, 웹소설이다. 한국 최대 규모인 1만여개 오리지널 IP를 보유한 스토리 부문은 더욱 다양한IP를 기획, 발굴하고, 이를 북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진출 지역에 선보인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북미에 타파스, 래디쉬, 우시아월드 3개 플랫폼을 아우르는 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 세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0만여명의 현지 창작자들과 협업은 물론 노블코믹스(Novel-Comics), 삼다무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노하우를 적극 결합해 북미 영상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유치로 초경쟁 글로벌 엔터산업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엔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진정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서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을 주도하며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T, 한국형 UAM 상용화 앞당긴다

유영상 등 주요경영진 CES 총출동 美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력 구체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조벤 비버트 조비 에비에이션 CEO 등과 만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협력 구체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12일 조비 에비에이션과 ‘CES 2023’ 및 UAM 생산시설을 방문해 K-UAM 실증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해 국토교통부 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참여했다.

유 사장을 포함한 SKT 주요 경영진은 CES 2023에 총출동해 조벤 비버트 CEO, 에릭 앨리슨 부사장 등 조비 에비에이션 핵심 경영진과 만났다. 양사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후 한국 UAM 상용화를 위한 사업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 새너제이 조비 에비에이션 생산시설에 있는 UAM 항공기 앞에서 조벤 비버트 CEO, 유영상 CEO가 포즈를 취하는 장면. /SKT

SKT는 조비 에비에이션 UAM 서비스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국내에 도입할 때 필요한 형식증명 절차, 초기 UAM 수요를 발생시킬 다양한 시험사업 추진 방안, 항공기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UAM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공개된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중에서 가장 먼 거리(249km/1h 17m) 가장 빠르게(330km/h) 비행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

될 경우 K-UAM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와 조비 에비에이션은 올해 8월 본격 시작되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통해 UAM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운용기준이 마련되면 지속가능성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본격 협업 2년차를 맞은 SK텔레콤과 조비 에비에이션이 한미 UAM 협업의 가교 역할과 K-UAM의 성공적 상용화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사업 본격화

美 협회서 고유 합금번호 부여받아 車 무게 축소로 연비개선 효과 기대

LS전선이 미래 핵심 소재 알루미늄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LS전선은 미국 알루미늄협회에서 고강도알루미늄 신소재로 고유합금번호(AA8031)를 부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A8031은 강도를 40% 이상 강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알루미늄 단점을 해결한 제품이다. 강도를 강화하면서 전도율도 최대한 유지했다.

LS전선은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가벼운 만큼 자동차 등 산업에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선 무게를 40% 이상 줄일 수 있어 자동차 무게를 약 10kg 축소, 연비 개선 효과도 기대

된다.

LS전선은 LS알스코와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등에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겸 LS전선 기반기술연구소 연구원은 “AA는 특허와 달리 상용화 여부 및 기간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이 쉽지 않다”며, “AA8031은 2019년부터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전선에 상용화되는 등 품질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 네오QLED, 생체리듬 최적화질 인증

獨 VDE 생체리듬 디스플레이 인증 아이 컴포트 모드로 색온도 등 조정

삼성전자 네오 QLED가 생체 리듬까지 신경쓰는 디스플레이로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3년형 네오 QLED로 독일 VDE에 ‘생체리듬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더 프레임’과 ‘더 세리프’, ‘더 세로’ 등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도 함께다.

VDE는 ‘아이 컴포트 모드’가 낮과 밤에 따라 자동으로 휘도와 색온도를 조정해 사람 생체 리듬에 최적화해 화질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라이팅 리서치 센터 연구 결과로 만든 업계 표준 ‘CS 지수’로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 TV는 낮에는 휘도와 색온도를 높여 실내에서도 실외와 같은 효과를 내고, 밤에는 반대로 낮춰 수면을 돕도록 작동한다. 앞서 2021년 업계 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융석우 부사장(왼쪽)과 스벤 오케(Sven Ohrke) VDE 마케팅·영업담당 사장이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생체리듬 디스플레이’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초 ‘아이 케어’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형 더 프레임은 ‘매트 디스플레이’로 ‘눈부심 방지’를 획득하는 등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시청 안전성과 색상 정확도를 인정 받아왔다. 지난해 QLED TV 전 모델이 팬톤 컬러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

포스코케미칼 친환경 활성탄소 신사업 진출

동서화학공업과 합작법인 설립

포스코케미칼이 석탄화학 전문회사인 동서화학공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수질·대기 정화용 친환경 소재인 활성탄소 신사업에 진출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11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 조용문 기초소재연구소장과 전장영 동서화학공업 회장, 홍영준 건설소재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탄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활성탄소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 말까지 연산 7000톤 규모의 활성탄소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합작사는 제철공정의 코크스

제조 중 생성된 유분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코크스는 석탄을 가공해 만들며 제철공정의 열원으로 활용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원료 공급과 활성탄소 제조를 담당하고 동서화학공업이 원료 가공을 맡는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활성탄소는 목재, 석탄 등의 탄소질 원료를 고열로 가공해 제조하는 친환경 소재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협작을 통해 국내 활성탄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활성탄소 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조원, 국내 2500억원 규모로 국내 사용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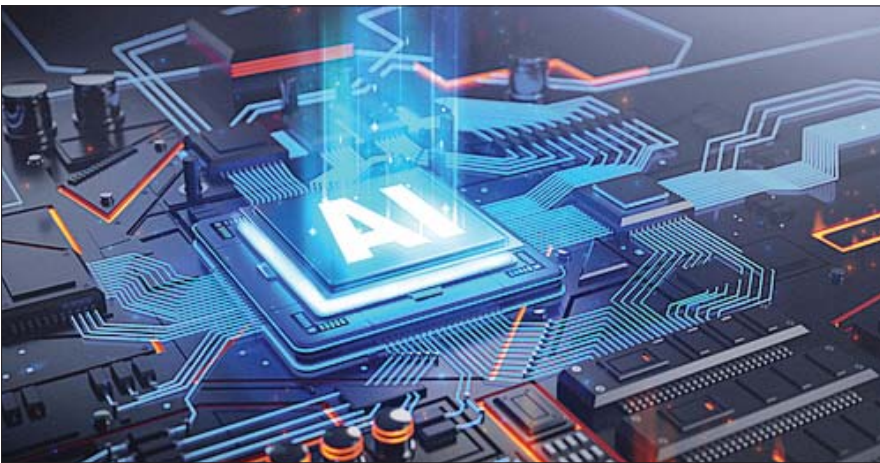
가상인간 애널리스트가 정보 전달… 증권업계 ‘AI 전성시대’

NH투자證, 개인 맞춤형 지수 개발
삼성證, 버추얼 애널리스트 선배
대신證, AI 대화형 상담 챗봇서비스

증권사들이 올해 고객 중심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9일 AI를 활용해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생애 주기 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지수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NH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의 베타버전을 선보였다. NH다이렉트인덱싱은 다양한 시장지수(index)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게 직접 수



증권사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앞세우고 있다.

/유투이미지

정해 나만의 지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이다.

NH투자증권은 베타버전을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 매대 기능이 포함된 정식 버전을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이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서비스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AI 기술

을 적용한 가상인간 애널리스트를 선보였다.

삼성증권은 지난해부터 삼성증권이 애널리스트의 모습과 음성 등을 복재해 만든 가상인간 ‘버추얼애널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AI휴먼전문기업 딥브레인과 협력, 버추얼 애널리스트를 개발했다. 또한 삼성증권이 서울대 휴먼인터페이스 연구실과 공동 개발해 특허받

은 음성합성모델도 함께 활용해 버추얼 애널리스트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밖에도 삼성증권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주식 포트폴리오 서비스 ‘주식굴링’을 선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가상인간을 활용한 리서치 보고서 콘텐츠 ‘쇼미더리포트’를 출시했다. 쇼미더리포트는 기존의 읽거나 듣는 보고서 형태에서 벗어나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가상인간 ‘한지아’가 리서치 보고서를 3~4분 길이의 영상으로 짧게 요약해 설명해주는 서비스다. 한지아는 한국투자증권이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신입사원의 얼굴을 학습해 탄생시킨 가상캐릭터로 향후 리서치 콘텐츠와 홍보, 상품설명, 사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인공지능(AI)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자산운용 역량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미래에셋증권 측의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에 AI 대화형 상담 챗봇서비스 ‘벤자민’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 벤자민은 대화형 챗봇서비스로 질문에 대한 학습을 스스로 해 답변을 고도화해가는 인공지능상담 서비스이다.

증권사들은 향후 AI 기술 도입에 더욱 활발히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개발비용만 빼면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 편의성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향후 AI 기술이 더 고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AI 서비스는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어 고객 편의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자들 수익률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완판’ 우량 회사채… A급 낙수효과 미지수

연초효과로 강한 매수세
우량채 위주 쏠림 현상

올들어 우량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에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단, 우량채 위주 쏠림 현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으로까지 자금조달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KT(AAA), 이마트(AA), 포스코(AA+), 연합자산관리(AA), LG유플러스(AA), CJENM(AA-), 롯데제과(AA), LG화학(AA+) 등이 공모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대부분 회사채가 흥행에 성공해 발행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리기도 했다. 발행량의 경우 지난해 1월 실질적인 8조7709억원을 넘어설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 6일 진행된 LG유플러스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는 2000억원 모집에 총 3조 26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흥행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발행량을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처음으로 미매각을 겪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집 물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진행된 포스코의 3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총 3조97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2012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다. 포스코 역시 발행량을 3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렸다.

연초에 크레딧스프레드 축소 나타나

나는 ‘연초효과’ 등으로 회사채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채안펀드 가동에 연초효과가 겹치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80bp(1bp=0.01%p)에서 지난 11일 기준 131bp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용스프레드가 줄어들면 기업의 자금조달 난도가 낮아져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신용채권 시장은 우량물을 중심으로 전 구간에서 신용스프레드 축소 흐름을 지속했다”며 “연말 강세를 주도했던 초우량물 대비 상위등급 회사채 및 여전채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졌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재개된 가운데 AAA~AA급 종목들의 수요예측이 진행됐고, 전 종목에서 매우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1월 국내 주요기업 회사채 발행계획〉

기업	신용등급	목표금액	발행액
KT	AAA	1500억원	3000억원
이마트	AAA	2000억원	3900억원
포스코	AA+	3500억원	7000억원
연합자산관리	AA	700억원	1000억원
LGU+	AA	2000억원	4000억원
CJ ENM	AA-	1700억원	미정
롯데제과	AA	1500억원	미정
LG화학	AA+	4000억원	미정

/각사취합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회사채 시장 훈풍이 A급까지 퍼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둔화에 따른 A급 기업의 실적 저하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A급 건설사 신용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전셋값 추가하락 예상 ‘역전세난’ 심화 우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1.15% 하락했다. 지난 6월 13일(-0.01%) 하락 전환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1.2를 기록하며 지난 6월 6일(95.0) 이후 지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차인 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호가의 하향 조정과 급매 거래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전세 수요 급감을 꼽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5882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전세물량(3만1220건)보다 78.9%(2만4662건)나 급증했다.

전세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평균 전셋값도 하락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9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전 평균 전셋값(6억6614만원) 대비 4.4%(2920만원) 떨어졌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퐁퐁 언 코인 시장에 국내 거래소들, NFT 등 활로 모색

NFT 중점으로 사업 다각화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12일 코인 시장 중개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8618억 달러(약 1072조원)로 1년전(2조26억 달러) 대비 56.97% 감소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역시 같은 기간 1조20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70% 이상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글로벌 건축 기초 속에서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 역시 크게 감소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일일 거래대금은 18억6320만달러로 1년 전 보다 63% 가량 감소했다. 각 거래소별로는 ▲업비트 15억4300만달러(59%) ▲빗썸 2억5536만달러(-77%) ▲코인원 5822만달러(-70%) ▲코빗 458만달러(-26%) ▲고팍스 204만달러(65%) 등 대부분 일일 거래대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현재 매출 99%가량이 매대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만큼 실적에 직격타를 맞은 셈이다. 올해도 가상화폐 업황이 나아질 기

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거래소들이 ‘NFT’를 중점으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NFT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손잡고 만든 합작법인(조인트벤처) ‘레벨스’를 통해 아티스트 관련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수집형 플랫폼 ‘모먼트카’를 출시했으며, 지난달에는 걸그룹 르세라핌의 NFT를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업비트의 자회사 ‘업비트NFT’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식물 보호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희귀식물 NFT를 제작하면서 90%가 넘는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영석 기자 ysl@



원광디지털대학교

오늘은 장학생 내일은 전문가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하고
특성화교육으로 앞서가자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모/집/기/간 2023.1.20(금) ~ 2023.2.15(수)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홈/페/이/지 www.wdu.ac.kr **입/학/문/의** 1588-2854

2020 교육부 평가인증대학 및
재정지원 가능대학 선정

입학생 장학금 수혜율 100%
* 2022년 1학기 기준

재학생 58% 전액장학생
* 2022년 1학기 기준

사이버대학 최다 지역캠퍼스 보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익산)

스케일업 분야 15조 투자… 딥테크 유니콘 10개 이상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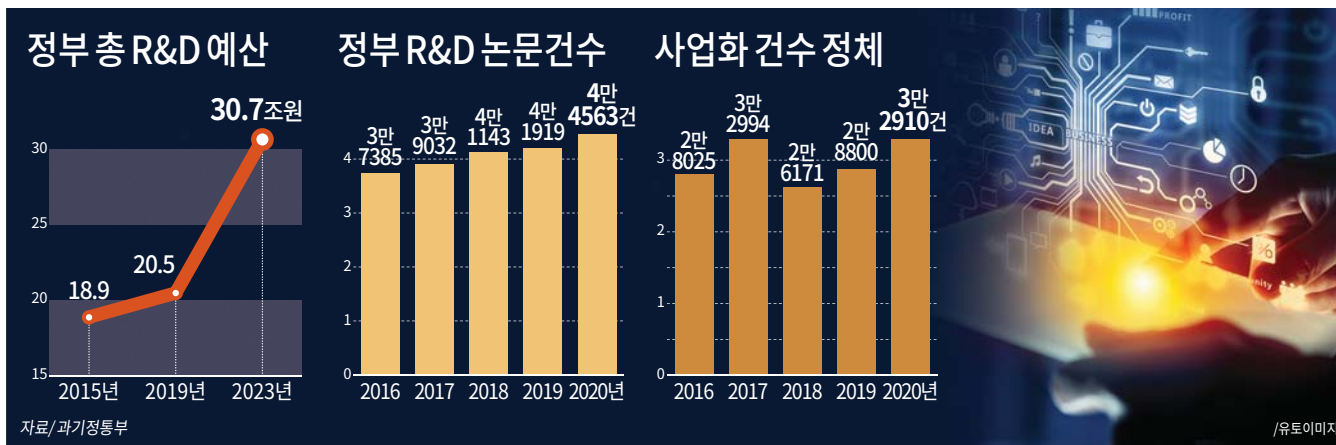
과기부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TF 구성
민간 주도·참여 확대 등 방향 제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스케일업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자한다. 딥테크 유니콘 기업은 10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딥테크는 기존에 없던 과학적 발견을 통해 등장한 모방이 쉽지 않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스케일업에는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스타트업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혁신기업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고리를 공고히 하고자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 달리기 강

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임무지향적 딥테크 분야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스케일업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함께 달리기를 통해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전주기 연계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

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 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와 민간,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R&D를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우리 아이 첫 안심폰 ‘신비 킴폰3’

KT가 ‘신비파트’ 캐릭터를 적용한 LTE 기반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KT 신비킴폰3’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KT 신비킴폰3’는 공식 온라인몰 KT샵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3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KT

KCC, 친환경 VI용 세라믹 본격 양산

〈진공차단기〉

국내서 유일하게 생산

KCC가 SF6-프리(Free) 친환경 진공차단기(VI)용 세라믹 제품 개발에 이어 양산에 돌입했다.

12일 KCC에 따르면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접합 성능, 조직 치밀성, 진공 기밀성이 우수해 송배전용과 수배전용 진공차단기에 주로 적용되며 전기·전자용 절연 부품의 핵심 소재다.

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에 1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전력산업용 가스차단기에는 절연 성능이 좋은 SF6 가스가 주로 쓰인다. 하지만 SF6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대비 온난화 지수가 2만3000배 이상 높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대기중에 한 번 배출하면 3200년간 존재하면서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SF6-Free 친환경 진공차단기는 외경이 180mm 이상의 대규모로 AI₂O₃

3 세라믹이 사용된다.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전류의 정상부하 개폐 및 전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로를 분리하는 진공 차단기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로, 국내에선 KC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KCC세라믹이 적용된 친환경 진공차단기에는 순수대기를 활용하는 최첨단 진공기술기반으로 SF6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KCC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KCC의 소재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는 물론 친환경성까지 고려한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코오롱인더, 친환경 바닥재로 유럽시장 노크

독일 도모텍스 하노버 2023 참가
고객사 파트너십 증대, 신규고객 발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유럽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한다.

코오롱인더는 12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하는 도모텍스 하노버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모텍스 하노버는 글로벌 바닥재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전시회다. 동종 업계에서는 최대 규모. 전세계 60여개국에서 1400여개 업체가 참여해 3만5000명 이상이 관람한다.

코오롱인더는 2011년부터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올해에는 친환경 카페트에 사용하는 기포지인 ‘폴리에스터 스펀본드(브랜드명 피논)’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코오롱인더는 친환경 제품 특별전인 ‘더 그린 컬렉션’에 부직포 업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업계 최초로 폐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을 출시해 GRS 및 환경성적표지(EP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도모텍스 하노버에 참가해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등을 소개한다.

D) 인증 등을 취득한 성과다.

코오롱인더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현지에 기존 고객사들과 파트너십을 증대하고 신규고객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NON-WOVEN 사업을 맡고 있는 최현준 담당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폴

리에스터 스펀본드가 갖고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판단해 전시회에 참여했다”라며 “국내를 넘어 유럽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속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제주항공, 시간 잘 지키는 항공사 ‘세계 5위’

국내 항공사 중 1위

제주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가운데 운항시간을 잘 지킨 항공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서는 1위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여행 정보제공업체 OAG 분석 결과, 지난해 시간을 가장 잘 엄수한 항공사는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이라고 보도했다.

OAG는 연간 공급좌석킬로(1좌석킬로는 한 좌석으로 1km를 비행한 것)가 가장 많았던 25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정시 운항은 예정된 시간의 15분 내 이·착륙한 항공편으로 분류했다.

가루다의 정시 운항률은 지난해 95.6%에 달했고, 제주항공의 경우 정시 운항률은 91.8%로 전세계 5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공사인 사페어와 독일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유로윙스는 두 회사 모두 95.3%의 정시운항률을 기록하며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이 각각 88.8%, 88.1%로 그다음이었다. 일본 항공사들은 ‘상위 20위’ 가운데 절반인 10곳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U+ 알뜰폰 ESG 요금제 한달만에 가입 1000명 눈앞

LG유플러스는 알뜰폰(MVNO) 전용 ESG 요금제 ‘탄소 중립 실천 요금제’가 출시 한달여 만에 가입자 1000명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실생활에서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 요금제’를 선보였다. 환경 보호, 기부 등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높은 MZ세대 반응이 긍정적이다.

/채윤정 기자

ICT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 3년 연속 1000억달러 돌파

ICT 수출 2333억달러… 2.5% ↑
반도체 수출액 1308억6000만달러
2차전지, 유망 수출품목으로 떠올라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진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종전 최고치(21년 2276억달러)를 경신하며 2년 연속 2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와 휴대폰, OLED, 2차 전지 등 주요 유망 품목들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ICT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로 전환했음에도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ICT 수입은 1524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무역수지는 808억5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 수출입 및 증감률(전년 대비)〉

구분 (억불, %)	전체산업			ICT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P	2020년	2021년	2022년P
수출	5125(△5.5)	6444(-25.7)	6839.4(-6.1)	1835.1(-3.8)	2276.10(-24)	2333.20(-2.5)
수입	4676.3(△7.1)	6150.9(-31.5)	7311.8(-18.9)	1126.3(-3.9)	1350.2(-19.9)	1524.7(-12.9)
무역수지	448.7	293.1	△472.3	708.8	925.8	808.5

※ 전체산업 대비 ICT산업 수출 비중 : (2020) 35.8% → (2021) 35.3% → (2022) 34.1%
※ ICT산업 수출 추이(억불) : (2019) 1,768.6 → (2020) 1,835.1 → (2021) 2,276.1(종전최고치) → (2022) 2,333.2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 유망 품목은 증가했으나 하반기 부품 수요 둔화로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8억6000만달러로 3년 연속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품목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단가 하락에도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상반기의 견조한 실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LED는 TV, 모바일 등 채택범위 증가로 수요 지속되며 전년 대비 4% 증

가한 151억달러를 달성, 디스플레이 수출의 60%를 넘어서며 주력 품목으로 도약했다.

휴대폰은 기기 둔화로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부품품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46.8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차전지는 전기차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00억달러를 달성해, 유망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교역량 둔화로 전년 대비 4.9%감소한 1023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은 366억4000만달러로 4.3% 증가했다. 미

국은 291억8000만달러로 4.4% 증가, 3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137억 3000만달러로 7.5% 증가했으며 일본은 44억30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과 미국 수출액은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12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한 16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주요품목과 지역별 수출이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ICT 수입액도 10.9% 감소한 11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는 5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흑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한 9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는 35.2% 감소한 16억 달러, 휴대폰은 28.9% 감소한 9억 5000만 달러, 컴퓨터·주변기기는 29.3% 줄은 11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 5개국 수출액 모두 줄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 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장 중단, 내수 정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줄은 6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대미, 대EU, 대일 수출액은 각각 19.8%, 4.9%, 17.7%, 15.4% 감소해 28억2000만 달러, 25억 달러, 10억3000만 달러, 3억3000만 달러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中企 R&D 도전기회 늘리고 책임성 강화

중기부, 전 단계 걸쳐 제도혁신 방안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대폭 부여

중소기업들의연구개발(R&D) 도전 기회가넓어진다. 자율적이고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기업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R&D 기회가 늘어난다. 중기부는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모험자본은 불확실한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이 대폭 축소된다. 현재 30~40페이지 수준에서 20페이지 이내로 줄어든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한다.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고르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 수행기업의자유로운 연구 활동

도 보장한다. 중기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중기부는 부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설을 맞아 전통

시장에서 소통하기위해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11일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상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설을 맞아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현장을 둘러보고, 경기상황에 대한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박 이사장(왼쪽 2번째)이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소진공

휴게실 설치 의무화에도 10곳 중 4곳 위반

고용부, ‘학교 등 휴게시설’ 점검

환경미화원, 경비 등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4곳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 등 27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인 124곳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대학교 10곳과 아파트 2곳 등 12개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학교 82곳과 아파트 40곳 등 122곳에서 261건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항은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고용부는 적발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89% 사업장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한도 확대

현재보다 50%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관련 지

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커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자랑스러운 충북인 대상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자랑스러운 충북인대상’을 수상했다.

중기중앙회는충북도민화중양회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충북인 신년교례회’ 시상식에서 김 회장이 최고상인 ‘자랑스러운 충북인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승호 기자

‘늘봄학교’ 추진 속도… 학교현장 “인력·재정 태부족” 냉랭

교육·돌봄 의지엔 공감대 형성
미흡한 인력·재정 우려 목소리
2025년 전면 도입까지 확대돼야
전교조 “충분한 논의·협의 필요”

교육 당국이 돌봄 확대 등을 포함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장과의 합의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9일 내놓은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늘봄학교 추진 방안)’에는 아침 7시 돌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늘봄학교는 2023년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에 시범 운영해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하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 방과 후 학교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가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3일 오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림학실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인력·재정지원 미흡해 학교에 떠넘기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늘봄학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1월 중순부터 공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3월부터 해당 프

그램 적용이 가능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의 경우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 학교가 상당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 방안으로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

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 공유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교총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도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단계적 확산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이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위한 지원이라면 2025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모에 걸맞는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정책의 확대가 시사될 때마다 교육 당국과 현장의 괴리감으로 인한 잡음이 꾸준히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정책 구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도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별도 봉사자를 위촉해 학교 자율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추진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실직·폐업 ‘서울형 긴급복지’ 129억 투입

서울시, 일시적 위기 가구 지원
지원대상 확대하고 지급액 상향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에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

원하는 제도가.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고, 재산 기준도 3억1000만원 이하에서 4억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비 지급액도 상향 조정했다. 작년까지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최소 62만33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했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종전과 같이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성신여대, 창의적 여성발명인 육성 나서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업무협약

성신여자대학교가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발명·창업인 발굴, 육성과 여성기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여성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여성 발명·기업인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산학협력 연구역량 확보



(왼쪽부터)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과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신여대

▲스타트업 및 여성 벤처기업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 ‘제2핀테크랩’ 개관

서울시는 디지털 금융 산업의 핵심 기술인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 마포구에 제2서울핀테크랩(제2핀테크랩)을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두번째로 문을 여는 제2핀테크랩은 디지털금융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제2핀테크랩은 경찰공제회 자람빌딩(도화동 566) 8층과 11층에 2014㎡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제2핀테크랩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기업 21곳과 멤버십 기업 16곳 등 총 37개사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시는 제2핀테크랩 입주기업에 ▲경영컨설팅, 투자·마케팅, 법률자문, 홍보 등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실 공간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교육청·교육지원청 대상 연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이번 시범연수는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한디거넌’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해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신하은 기자

인천 검단·청라연장선 전동차 디자인 확정

인천시, 시민 선호도 조사 바탕으로 선정
검단연장선 외관, 안정·속도감 표현

인천시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및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의 전동차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차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일부 역사에서 시행하던 기존 시민 선호도 조사 방법을 탈피해 인천1호선 전구간과 서울7호선 인천구간의 승강장 및 전동차에 직접 탑승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인천시민 총 8141명이 참여했다.

최종 확정된 검단연장선 전동차의 외관 디자인은 시각적인 안정감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실내는 부드러운 곡선라인과 심플함을 추구했다. 바닥면은 인천1호선 노선컬러를 적용해 이용객에게 직관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아울러 청라국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전동차 조감도. /인천시

도시연장선 전동차는 외관은 강렬하면 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했고, 실내는 사다리꼴 구조의 단단한 무게중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이번에 제작되는 전동차들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기존보다 넓은 광폭의자가 적용되며, 객실간 통로는 오픈형태로 제작돼 이동이 편리해진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하철 이용객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인천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최종선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연극

추적

SLEUTH

앤드류_役_주원성 · 박성근 · 김일권
마일로_役_김형준 · 박건우 · 원덕현

2022.10.21(금)~2023.1.15(일)
평일 19:30 주말,공휴일 14:00/18:30
SH아트홀



제작 · 주최  SUK! COMPANY

관람등급:만 7세 이상
미취학아동입장불가

출범 1년 맞은 창원특례시… 사회복지 혜택 확대 등 성과

연간 149억 복지급여 혜택 추가
소방재정 5년간 100억 추가 확보
특례시 사무 이양 등 숙제 산적

경남 창원특례시가 1월13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편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 혜택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일선 창구 접수 결과(2022년 11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제1회 임의회의

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

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 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 전용 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례시 사무 이양,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등 더딘 입법 절차와 포괄적 권한 이양, 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의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울산시의 지역 관광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12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한국관광공사, 전국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역 관광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 연면적 1038㎡ 규모로 설치됐다.

주요시설은 학술회의실(컨퍼런스룸), 소회의실, 상담실(컨설팅룸), 미디어룸, 기업 입주공간 등 다기능 관광혁신 거점 공간을 갖추고 관광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경북 김천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된 공용시설을 보수해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설치·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대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상하수도, 주차장 ▲보안 등, CCTV ▲운동·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등이다.

/김천(경북)=김상복 기자

의성군

기초단체 브랜드평판 군부 1위

경북 의성군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에서 3개월 연속(2022년 10~12월) 군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최근 대한민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억 1487만여 개의 빅데이터 평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의성(경북)=김상복 기자

부산시, 시내 22곳에 도시숲 조성

총 2만9000㎡ 면적

부산시는 올해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부산 시내 22곳에 총 2만9000㎡ 면적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숲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올해 도시숲 조성에 점·선·면·구조물 등 도시공간 형태별 다양한 녹화방안을 도입해 ▲녹색쉼터 ▲

가로수조성 ▲화단녹지조성 ▲고가하부녹화 ▲옥상녹화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주요 도시숲 조성 예정지는 ▲수영구 뽕나무 보호수 쉼터 등 녹색쉼터 유형 4곳 ▲북구 만덕1동 마을산책길 가로수 조성 등 가로수 유형 3곳 ▲해운대구 좌동 사잇길 가로화단 조성 등 화단녹지 유형 11곳 ▲중구 영주고가 하부 도시숲 조성 등 고가하부녹화 유형 2곳 ▲강서구 명지노인종합복지관 등 옥상녹화 유형 2곳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목포시 부흥동과 신안군 흑산면의 자매결연 협약식.

/목포시

목포·신안 통합기반 시동… 협력체계 강화

지난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운영

목포시가 신안군과의 통합 기반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직후 서남권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발전과 30년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을 신설·운영하며 통합에 대한 집중력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주민공감대가 부족해 무안반도 통합에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관(官) 주도의 일방적 추진은 지

양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신안군과의 통합을 추진해간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생조직간 자매결연, 김장김치 담그기,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민간의 교류 활성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전개되고 있다. 시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군 유치 동참 등 신안군의 현안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행정에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대구시, 자연친화 수변공간 만든다

‘금호강 르네상스’ 본격 추진

2026년까지 사업비 810억 투입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 병행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23년 선도사업의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선도사업 3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비 810억원(국405, 시405),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구성됐다.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사업비 450억 원)은 2026년까지 동촌유원지 일원에 생태수로, 비오톱 복원 및 사계절 물놀이장과 샌드비치 조성으로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거점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사업비 300억 원)은 2025년까지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자원(화원유원지, 달성습지)의 연계를 위한 랜드마크 보행교를 설치해 금호강·낙동강 합류부의 두물머리 경관명소 창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다.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사업비 60억원)은 2024년까지 천혜의 하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금호강 안심권역 일원에 안심습지·금강습지·팔현습지를 연계해 하천 자연환경의 훼손 없이 시민들이 생태·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접하고,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사업의 설계용역은 내부 T/F 팀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완성도를 높여 금년 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나주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국비 5000만원 확보

나주시가 청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사업부문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들의 소득 안정, 창업에 따른 추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지역혁신형’, ‘상생기반 대응형’, ‘지역포용형’ 3가지 분야에서 지자체 신청 사업을 선정했다.

나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상생기반 대응형 분야로 청년의 창업 초기 성장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올해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5600만원을 투입, 올해 창업을 희망하는 1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소포장 간편 식재료로 1인 가구에 ‘맛있는 집밥’ 선물

CJ제일제당 ‘비건다시다’ 스틱형 콩 단백질로 깊은 소고기향 구현

하림 ‘치킨스톡’ 14개 재료 우려 계란찜·볶음밥에 소금대신 사용

1인 가구가 유통업계 소비 주축으로 떠오르고 내식 생활이 대세로 굳어지자 유통업계가 요리에 활용도가 높은 소스와 육수 등 관련 식재료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고물가로 인해 집에서 요리해 먹는 내식 생활이 일상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1인 가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2만2000가구



비건다시다

/CJ제일제당



오도독 매콤 짭아치

/스콜푸드

(7.9%)가 증가한 것으로 2050년에는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39.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인 가구의 경우 한꺼번에 장을 보는 대신 먹을 만큼만 소분되어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특히 국물요리는 깊이있는 맛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재료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별도 재료 준비없이 빠르게 육수를 낼 수 있는

제품이 인기가 있다.

CJ제일제당의 ‘비건다시다’ 스틱형은 5g 용량으로 12개가 들어있어 요리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기 좋다. 콩 단백질로 고소하고 깊은 소고기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다시다의 깊고 진한 감칠맛을 그대로 살렸다. 명절에 떡국의 베이스 국물 내이용으로 사용해도 안성맞춤이다.

하림의 ‘치킨스톡’은 액상형 제품의

로 물에 녹이는 과정 없이 1인분 요리에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산 닭고기예 양지, 사태, 표고버섯, 각종 야채 등 14가지 천연재료를 진하게 우려내 계란찜이나 볶음밥을 만들 때 소금 대신 사용하면 요리의 풍미를 높여준다.

분식 프랜차이즈 스콜푸드의 ‘마요소스’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달콤 고소한 맛의 소스로 간단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오도독 매콤 짭아치’는 비빔밥이나 김밥에 활용할 수 있어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타고 있다.

최근 외식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를 기록했다.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은 지난해 5~14%의 상승했다.

이에 대안책인 밀키트가 주목받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1년 2587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3363억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앞으로도 이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hy의 지난해 밀키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3% 올랐다. 2020년 대비 5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세프는 지난해 11월 홈파티용 밀키트 매출 비중이 전월 대비 약 50%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국맥도날드가 전국 레스토랑 점장 컨벤션 행사에서 ‘2022 푸드 세이프티 히어로 시상식(Food Safety Hero Award)’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맥도날드 남향선 점장, 김기원 대표, 이연정 점장, 진유식 점장.

/한국맥도날드

맥도날드, 식품안전 모범 점장에 시상

‘푸드 세이프티 히어로 시상식’ 진행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0일 전국 레스토랑 점장 컨벤션 행사에서 ‘2022 푸드 세이프티 히어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식품안전 분야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점장들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푸드 세이프티 히어로 시상식’은 한국맥도날드가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내부 시상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각 매장의 점장들을 ‘식품안전의 영웅’으로 표현하고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해 식품안전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는 최상위 1%

매장의 점장을 선정해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다양한 내부 활동의 기회와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기준은 식품안전 관련 ▲법적 사항 준수와 ▲각종 내·외부 점검 결과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 척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개인 부상이 전달되며, 협력업체 견학의 기회도 부여된다. 또한 사내 식품안전 관련 영상 출연, 매장 일일 코치, 식품안전 절차 피드백 등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애경산업, 협력사 거래대금 72억 조기지급

원부자재·포장재 공급 60여곳 대상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원부자재, 포장재, 제품 등을 공급하는 6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72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유동성 확보 등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 협력사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력사와 함께 기술 지원,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마켓컬리, 홍콩시장서 간편식 14종 등판

이커머스 ‘홍콩티비몰’에 브랜드관 이연복의 목란 짜장면 등 선보여

컬리는 홍콩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홍콩티비몰(HKTVmall)에 마켓컬리 브랜드관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시장 진출은 지난해 8월 싱가포르 레드마트 입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15년 설립된 홍콩티비몰은 홍콩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 65.7억 홍콩달러(약 1조700억원), 순고객 수 130여만 명 등 각종 수치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홍콩티비몰의 식품 카테고리에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자체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냉장·냉동 배송 서비스가 강점이다. 최근에는 홍콩 전역은 물론 마카오 지역까지 배송 범위를 확장할 정도로 뛰어난 물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컬리는 홍콩티비몰 마켓컬리 브랜드관에서 우선 인기 냉동 간편식 14개를 선보인다. 이연복의 목란 짜장면, 광화문 미진 비빔 메밀 등 컬리온리로 선보이는 레스토랑 간편식(RMR)이 대표적이다.

컬리는 싱가포르 레드마트에 이어 이번 홍콩티비몰 입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오투기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식품기업 오투기가 ‘제1회 오투기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투기 제품을 매개로 사람과 공간, 시간을 하나로 연결해 식문화와 아트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오투기 제품 ▲오투기 제품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오투기 스토리’ 등 2가지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일반 부문(만 19세 이상)과 어린이·청소년 부문(만 7세 이상~18세 이하)으로 나눠 진행되며, 1인당 출품작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로 ‘오투기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해진 규격과 형식에 맞춘 작품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 통과 시 2차 심사를 위해 작품 실물을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택배 접수도 가능하다.

최종 당선작은 4월 초에 발표되며 총 상금은 2000만원 규모다. 수상작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투기의 브랜드 체험 공간인 ‘롤리폴리 꼬뜨’에 전시된다.

/신원선 기자

대상, 취약계층에 4500만원 상당 설 선물

대상(㈜이명절을맞아서) 서울 동대문구 관내 취약계층에 4500만원 상당의 청정원 설 선물세트를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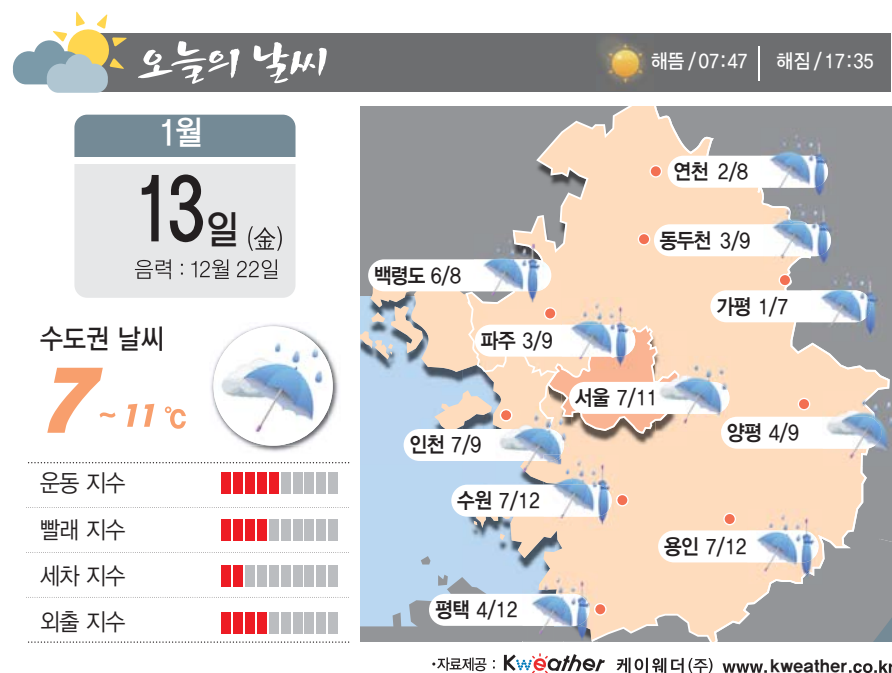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된 선물세트 전달식에는 나광주 대상(㈜ESG경영실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청정원 선물세트는 명절에 어울리는 청정원 호밍스 제품으로 엄선된 ▲건강보양한식세트 ▲가정한식세트

와 명절 인기 품목인 유지류와 김 제품을 함께 담은 ▲재래김고급유혼합2호로 구성됐다. 이는 동대문구청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14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상(㈜의 지역 연계 사회공헌활동 ‘설날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대신해 진행됐다.

/신원선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F4’의 정책공조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새해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낱말은 ‘위기’ ‘불확실성’ ‘변동성’ ‘침체’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물론 개인과 기업도 움츠린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대부분의 기관이 1%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기획재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의 예측치가 그렇다. 정부가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처음이다.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낮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기상도도 ‘흐림’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최고수준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가운데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불과 1년새 이자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 물가와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희망은 없는 것일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인 ‘F4’가 윈윈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F4의 ‘F’는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Finance)로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뜻한다. 그는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금융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에 높은 과고가 예상되지만 절묘한 정책 공조를 통해 뛰어 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 난다. F4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F4가운데 한 명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정교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물가와 금리 정책을 펴는 한은이 손발을 맞춰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독립성’을 앞세워 정부와 거리를 뒀던 한은 총재와는 결이 다르다.

난세 속에 금융은 경제 활력의 ‘혈액’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 남지 못한다. 추 부총리가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이끌고 있는 F4의 상황인식은 일치한다. 정책공조에 대한 협업 의지도 높다. 결국은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잠재력이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아랫목 뿐만 아니라 웃목까지 온기를 느끼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수세적인 태도보다 공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비즈니스가 답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미운털’ 굴레서 벗어나야



김 정 산
(금융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OO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의 통장 비밀번호가 전부 노출이 돼 전화를 드렸습니다. OO지점에서 비밀번호 분실하지 않으셨나요?”

과거 한 코미디 방송에서 나온 대사다. 중국동포가 저축은행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내용을 다룬다. 보이스피싱범의 어설픔 언변 때문에 때면 범행에 실패하는 내용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관객들은 ‘기가 막힌 현실 고증’이라며 감탄을 했다. 저축은행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이니 보이스피싱범이 사칭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

‘계묘년’ 새해가 밝자마자 저축은행업

계가 시끄럽다. 일부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신년부터 찬물을 확 끼얹고 시작한다. 아울러 지난해 저축은행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이 수 차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빈틈을 노려 횡령을 저질렀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공들였던 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이후 저축은행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저축은행이 줄도산하자 불안감을 느낀 예금주들이 ‘뱅크런’이 일어났다. 예금주들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토끼의 해였다. ‘신묘년’을 지나 ‘계묘년’이 다가왔다. 여전히 ‘신뢰의 탐’을 쫓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변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가 하면 ‘2금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법 사금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지인들에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애써 해명한다.

한 번 박힌 미운털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미운 행동은 크게 보이고 선행은 한없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미운털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만 같다. 고금리 예금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식 개선 속도가 더디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기관임에도 미운털이 콕 박혀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디지털 전환을 속제로 꼽고 있다.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우선이다. 디지털전환을 통한 이미지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있다. 48년생 이혼이 결국 비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60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2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84년생 지금부터 저축으로 검박하게 생활을.

37년생 카페에 가서 커피마시며 친구를 만난다. 49년생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 61년생 더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73년생 급하게 서둘러서 후회하 막급이다. 85년생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독해력이 뛰어나다던데.

38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해라. 50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62년생 자녀와 불화는 대화로 풀어라. 74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 86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39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 5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63년생 두루 배풀면 일이 순조롭게 해결. 75년생 부드러움 보다 강하게 나가라. 87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는 천천히 챙겨라.

40년생 아날로그에 끌리는 음악 감상을. 52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 64년생 직장에 변동수가 있으니 마음을 잡을 때. 76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능력도 최고조이라 행복. 88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날.

41년생 치과치료는 늦추지 말고 바로 받아라. 53년생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라. 65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 77년생 조직의 뜻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기보다는. 89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들의 거래가 성공적.

42년생 모든 일은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54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66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78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90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선풍기 켜놓는다.

43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55년생 이성유혹이 많은 날이니 잘못하면 망신 수. 67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하라. 79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91년생 외출을 하면서 행운이 따른다.

44년생 제사를 지내고나니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지혜를 얻는다. 56년생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좌우된다는데. 68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 이루어진다. 80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92년생 막혔던 자금이 풀리기 시작.

45년생 회의에서 객관성은 떨어지더라도 나서지 말도록. 57년생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69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을 본다. 81년생 금전 운이 약간히 돈거래는 신중. 93년생 능력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46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58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70년생 양보다 질을 따져보고 결정. 82년생 지출이 많으니 재할용으로 아껴라. 94년생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면 활동을 하도록.

47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59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1년생 공과 사를 올바르게 구분. 83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밤길을 가니 봐주는 사람이 없다. 95년생 학문에는 불충분한 학설도 있게 마련이니.

김상회의四季

어머니 같은 햇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사분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어머니를 여의고 삼 년이 지났는데 천도재를 지내고 싶다고, 이유를 물어보니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을 글썽인다. 첫째 아이가 중학생인데 사춘기를 겪는지 본인에게 심한 말을 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도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느냐며 책가방을 던지더라. 아이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데 불현듯 그 나이 때 자기 모습이 생각났다. 자기도 중학교 때 어머니에게 비슷한 말을 한 게 떠올랐다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후다닥 치른 장례가 자주 마음에 걸렸다.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천도재를 드리며 어머니 영혼이 극락에서 편안하기를 기도하고 싶단다. 여사분은 너무 늦은 천도재가 아닐까 우려했지만 어떤 일이 있든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어머니는 생사生死 언제든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줄 것이다.

사람들은 젊어서는 어머니의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쉽게 기억에서 잊어버린다.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에 희망을 품는다. 살림살이가 좋아지길 아꼈던 몸이 회복되길 안 좋은 일이 사라지길 복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희망을 품는다. 모두에게 따뜻한 봄 햇살이 인생에 가득 차기를 바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햇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봄 햇살처럼 자식들을 감싸줬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오래도록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건 자기가 나이 들고 난 다음이다. 새해에는 평소보다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머니 같은 봄 햇살이 내 인생에 가득찰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마을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6		7
			6	7			8
9		4		5			
		5	7			3	
							4
6				2			9
					6		
1		9				7	

			6	3		1	2		
	3		5	6	2			9	
	7	2					3	6	
		8					4		
	6	9					1	5	
	8		7	9	3			1	
		7	4		5	9			

과·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는 첫 설을 앞두고 유통업체가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성비를 챙긴 선물세트와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등 가격대의 폭을 넓혀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또 가치소비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한 선물세트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인기있는 계묘년 설 선물세트를 모아봤다. <편집자 주>

가성비 부터 프리미엄까지 환경 생각한 착한선물 ‘찜’



I 롯데백화점 I ‘설 선물세트’ 본판매



한우등급·청과당도 상향 인증 수산물 등 품질상승

롯데백화점이 2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해, 프리미엄 선물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맞아 주요 선물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상품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한우 등급과 청과 당도를 상향하고 인증 수산물을 확대 도입하는 등 선물의 품질을 더욱 높였다. 지난해 판매된 전체 한우 선물세트 중 1+ 등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약 30%p 증가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1+ 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품목 수를 40% 이상 늘려 더욱 다양하게 준비했다.

청과 선물 세트는 과일의 평균 당도를 기존보다 약 10% 높이고, 수산 선물 세트는 인증 선물 세트를 확보해,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와인 또한 롯데백화점의 전문 소믈리에가 직접 큐레이션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선보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소믈리에가 이번 설을 맞아 ‘셀러 셀렉션’과 ‘데일리 셀렉션’을 테마로 추천 와인을 엄선해 준비했다.

친환경 콘텐츠도 강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업계 최초로 일반 한우보다 탄소 배출량이 65% 적은 저탄소 한우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한 보랭 가방에 넣어 판매한다. 지난 추석때 처음으로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던 보랭가방 회수 프로모션은 ‘곶감’과 ‘정육’ 세트뿐 아니라, ‘선어’ 선물 세트까지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10만원 미만 한우로 장바구니 부담 덜어요”

I 롯데마트 I 가성비 선물세트 확대

롯데마트가 오는 22일까지 선물세트 판매에 나서며 가성비 선물세트를 대거 늘렸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으로 가성비 좋은 알뜰, 실속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준비한 가성비 선물세트의 매출을 살펴보면 사전판매 당시 전년 설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의 이번 가성비 선물세트 라인업에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MD(상품기획자)들의 노력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먼저 롯데마트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0만원 미만의 한우 ‘물가안정 기획세트’ 물량을 전년 설 대비 30% 이상 확대 준비했다.

한우 직경매 자격을 갖춘 한우 전문 MD(상품기획자)가 매일 아침 충북 음성, 부천 축산물 공판



장으로 출근해 한우 시세가 전년 대비 하락한 시점에 미리 설 선물세트 사전 물량을 확보했고, 롯데마트의 자체 신선품질혁신센터에서 상품을 가공해 고품질의 한우를 가성비 선물세트로 선보일 수 있었다.

또 롯데슈퍼와 물량을 통합 소싱해 전년 대비 60% 이상 물량을 늘렸다. 이번 설 한우 선물세트는 지난해 설 선물세트 대비 5% 가량 저렴하다.

/김서현 기자

I AK플라자 I 설 명절 선물세트

수산·정육·과일 등 DIY ‘셀프 초이스 기프트’ 확대

AK플라자는 오는 1월 23일까지 AK플라자 백화점 분당점, 수원점, 평택점 식품관에서 설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AK플라자는 지난해 론칭한 ‘셀프 초이스 기프트’로 고객 선택의 폭을 늘린다. 명절 한정 운영 중인 셀프 초이스 기프트는 AK플라자 식품관이 직접 매입한 수산, 정육, 과일을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형태의 선물세트로 구성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DIY형 선물세트다.

이번 명절에는 인기 품목인 한우 세트에 변화를 줬다. 특히 올해 설부터는 고객이 선택 가능한 한우 품목에 중저가 한우 상품군을 대폭 추가했다. 중저가 한우 셀프 초이스 기프트는 상품 구성에 따라 10만 원 초반부터 20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셀프 초이스 기프트뿐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작은 사치를 즐기려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를 반영해 ‘마이하트’ 세트와 ‘달콤 제주 삼색 향기’ 세트도 선보인다. 마이하트는 청포도와 적포도를 교배해 붉은색 빛을 띄는 포도로 자두·포도·사과 등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나고 평균 당도도 우수하다. 달콤 제주 삼색 향기 세트는 제주 서귀포 지역의 우수농가에서 생산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으로 구성된 고당도 만감류 선물 세트다.

또 늘어나는 와인 및 위스키 애호가들을 겨냥해 희소성 있는 프리미엄 와인(▲메종 르루아 ▲루이라푸르) 및 희귀 고연산 위스키 ‘달모어 컨스텔레이션’ 등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I 현대백화점 I 설 선물세트



가성비·가성비 투트랙 전략 소포장 한우부터 영광굴비까지

현대백화점은 21일까지 압구정본점을 포함한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현대H몰)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대표 명절 선물인 한우 선물세트를 역대 최대 물량으로 선보인다. 특히 실속 선물 세트 수요에 맞춰 10만원대 소포장 한우 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40% 확대 운영한다. 프리미엄 선물 수요를 겨냥해 100만원 이상 초(超)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렸다. 1++등급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 최고 등급(No.9)만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과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 등이 대표적이다.

수산물 세트의 경우, 실속 선물세트인 ‘영광 특선 참굴비 매(梅) 세트’부터 국내에서 연간 100여 마리밖에 잡히지 않는 35cm 이상 참굴비 10마리 ‘현대명품 참굴비 수(秀)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 100여 품목을 선보인다. 청과 선물세트 구성도 다양화 했다. 명절 대표 과일인 사과·배는 물론, 최근 선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샤인머스켓·망고 등 디지털 과일을 혼합 구성한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해 선보인다.

300억원 규모의 와인 선물세트 총 1만 2000여 세트를 준비해 역대 최대 물량의 와인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물가 폭등에도 1년전 가격으로 ‘착한 굴비’

I 이마트 I 굴비세트 12종

이마트는 22일까지 굴비 설 선물세트를 지난해 설·추석 가격으로 판매한다. 굴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지시세가 20% 급등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총 12종의 굴비세트를 준비했으며 대표세트는 ‘명품골드 영광참굴비 1호’, ‘특선 영광 참굴비 1호’가 있다. 최고급 굴비세트 물량을 최대 50% 추가 확보했다.

굴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잦은 풍랑주의보 등 바다 조업 환경 악화와 참조기 어군 형성 부진 등으로 어획량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약 40%, 11월에는 약 25% 줄었다. 산지시세 역시 22년 10월, 11월의 경우 2021년 동기간 대비 각각 15.2%, 20.8% 급등했다.

이마트는 본격 성어기에 진입한 2022년 10월 전반기 어획량(1881톤)이 2021년 10월 동기간 대비(4659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파악하



고 참조기 경매장을 보유한 목포수협, 한림수협 등을 통해 설 굴비세트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이외에도 제주 대왕 갈치, 옥돔, 금태 등으로 구성된 인기 프리미엄 세트 판매가 역시 지난해 명절 가격 그대로 동결했다.

지난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한 명절임에도 프리미엄 선물세트 트렌드가 지속되었으며, 특이 어종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수산물 세트 역시 전년도 추석대비 약 12% 매출이 성장했다. 이마트는 산지 협력사와 사전비축을 통해 인기 프리미엄 세트 물량을 22년 추석 대비 20~30% 늘리며 판매가를 동결할 수 있었다.

/김서현 기자

I 롯데칠성 I 백화수복

“건강과 행복 비는 마음 담아
정성껏 빚은 청주 올리세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수복’은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79년 전통의 대표 차례주로,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제품이다.

‘백화수복’은 100% 국산 쌀의 외피를 30% 정도 도정한 뒤 사용하고,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3도다.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캡(병뚜껑)에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백화수복은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며,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찬 바람이 부는 계절에 야외에서 음용하기도 좋다.

차레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제품 용량이 700ml, 1.8l의 두 종류로 이뤄졌으며 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79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대로 엄선된 쌀로 정성껏 빚어 만든 청주 제품”이라며 “1만원대 전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복하기 좋은 술”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I 정관장 I 굿베이스

“홍삼담은 흑마늘·석류로
일상속 남·여 건강 지켜요”

정관장의 ‘굿베이스(GoodBase)’는 우리나라 건강식품을 대표하는 KGC인삼공사의 프리미엄 소재 건강 브랜드다. ‘건강한(Good)’ ‘원료(Base)’로부터 시작한다는 브랜드 철학에 기반해 고품질의 원료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정관장의 프리미엄 소재 건강식품 브랜드다.

2022년에는 프리미엄 알로에를 엄격하게 골라 만든 ‘피부건강엔 알로에젤리틱’을 선보였다. 피부건강은 물론 장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중 복합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이다.

굿베이스 대표 제품으로 ‘홍삼담은 석류’와 ‘홍삼담은 흑마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여성과 남성을 대표하는 건강 소재 제품으로, ‘홍삼담은 석류’는 간편성과 맛, 여성 건강을 꼼꼼히 찾는 여성들이, ‘홍삼담은 흑마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찾는 직장인 남성들이 주로 찾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땅의기운담은 수세미 배도라지’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땅의기운담은 수세미 배도라지’는 수세미배도라지추출액 100%를 담은 제품으로, 한 포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홍삼담은 베스트컬렉션’은 남성건강 대표 원료인 흑마늘, 여성건강 대표 원료인 석류에 정관장 6년근 홍삼을 더해, 부부 선물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3만원대 선물세트 제품이다. 스테디셀러인 홍삼담은 베스트컬렉션 외에도 굿베이스 선물세트 제품으로는 기쁨담은 선물세트와 활력담은 선물세트가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I 베스킨라빈스 I 아이스 가래떡

우유·고구마·흑임자 담은
달달한 ‘아이스 가래떡’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스킨라빈스가 설 명절을 맞아 신제품 ‘아이스 가래떡’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제품 ‘아이스 가래떡’은 민족 대명절 설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가래떡 모양의 찹쌀떡 속에 달콤한 베스킨라빈스의 대표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져 탄생한 디저트다.

진한 풍미의 우유 아이스크림을 흰떡이 감싼 ‘우유 가래떡’, 보라색 떡 속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꿀고구마 아이스크림이 담긴 ‘꿀고구마 가래떡’, 고소한 흑임자 우유 아이스크림을 쫄쫄한 검은 떡이 감싼 ‘흑임자 우유 가래떡’ 3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아이스 가래떡’ 3종은 단품으로 구매 가능하며 ▲4개입 세트 ▲6개입 세트에 원하는 맛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가래떡 모양의 쫄쫄한 삼색 찹쌀떡 속에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조화를 이뤄 완벽한 맛과 식감을 선사하며, 온 가족이 특별한 명절 간식으로 함께 나눠 먹기에도 선물하기에도 제격이다.

베스킨라빈스는 설 선물세트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오는 18일까지 해피오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사전예약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최대 3000원의 가격 혜택이 제공되며, 19일부터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픽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는 14일부터 전국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별도 구매할 수 있다. 또, 제품 출시 후 24일까지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해피앱) 바코드 스캔 시 최대 3000원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가성비·친환경·웰니스 트렌드 별 선물 준비

I CJ제일제당 I 선물세트 300여종

CJ제일제당이 설 명절을 맞아 ‘가성비’, ‘친환경’, ‘웰니스’ 트렌드에 맞춘 선물세트 300여종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1만~2만원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을 약 10% 늘렸다. 1만원대 ‘파래김1호’와 1만~2만원대 복합세트인 ‘특별한선택 K-4호’ 등 중저가 신제품들도 새롭게 추가했다.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도 놓치지 않았다. 이번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김 세트 ‘초사리곱창돌김’·‘감태김’ 세트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약 163% 성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설에는 물량을 약 30% 늘렸다.

친환경 선물세트도 운영한다. 올 페이지 패키지 ‘Save Earth Choice선물세트’ 브랜드를 선보이고 비닐 라벨을 없애 ‘스랩 라벨프리 선물세트’와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은 ‘CJ 명가김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 출시한 ‘한뿌리



흑삼진액 ZERO’, ‘한뿌리 흑녹천’ 등 건강 선물세트도 눈에 띈다. 무설탕으로 걱정없이 즐길 수 있는 한뿌리 흑삼진액 ZERO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 만날 수 있다.

CJ웰케어의 독자적 기술로 감미료, 보존료, 착색료를 넣지않고도 건강과 맛을 챙겼다. 뉴질랜드 최상위 등급인 SAT등급 농육과 5가지 버섯을 함유한 한뿌리 흑녹천은 코스트코에서 구매 가능하며, 3050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미피와 킬래버... 한정판 ‘뽀글이 파우치’ 준비

I 크리스피크림도넛 I 시즌제품 4종

롯데GRS가 운영하는 도넛 프랜차이즈 브랜드 크리스피크림도넛이 2023년 ‘흑토끼 해’를 맞아 출시한 시즌 제품 4종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미피(miffy)’ 캐릭터와 콜라보를 통해 귀여운 토끼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제품으로 ▲부드러운 라이스프레드를 가득 충전한 해피 미피 ▲초코우유크림과 헤이즐넛초콜릿으로 장식한 럭키 멜라니 ▲달콤한 멜론의 도넛에 토끼의 뒷모습을 표현한 러블리 래빗풋 ▲당근케익도넛에당근크림을가득 충전하고 당근 사인판을 토핑한 캐롯 가든이 주인공이다.

신제품과 함께 한정판 굿즈도 선보였다. 크리스피크림도넛 신년 판촉물은 작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미피 뽀글이

파우치’다.

롯데GRS 관계자는 “2023년 한 해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며 “매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피크림도넛’은 1937년 미국에서 출발했으며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2004년 신촌에 1호점을 오픈하며 국내에 도입했다.

도넛 특유의 달콤한 맛과 도넛 제조 기계를 통해 도넛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객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도넛극장’을 매장 내부에 구성해 미각·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했다. 현재 생산형 매장으로는 서울 영등포점, 광주 첨단점, 수원 인계점, 대구 범어점, 김해 봉황점, 울산 삼산점, 건대스타시점, 대전 둔산점, 서울 대치점 총 9개를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I 롯데제과 I 자일리톨껌

마스크로 건조해진 입안
‘센스만점’ 에티켓 선물

새해 치아 건강을 기원하며 자일리톨껌을 선물한다면 받는 사람은 색다른 느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이 상시화된 요즘 더욱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에티켓 선물로 주목 받는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우리나라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롯데자일리톨껌에는 자일리톨과 함께 치아 재석화와 효능이 있는 후노란(해조 추출물)과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우유 단백질에서 분해), 인산칼슘 등이 들어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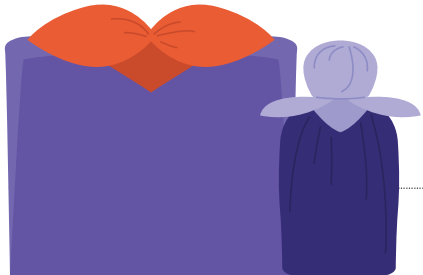
또한 자일리톨껌은 단맛이 설탕보다 강해 입안에 침샘을 활발하게 자극시킨다. 이는 오랜시간 마스크를 착용으로 건조해진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은 구강 주위의 근육 사용을 줄여 구강내 자정작용을 저해 할 수 밖에 없다. 타액의 분비가 줄어 구강 내 세균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롯데자일리톨껌은 매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며 국민 치아건강에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기록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제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치과 진료사업,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구강관리 교육, 기타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I 하이트진로 I 슈퍼 프리미엄 증류소주·와인

“풍미 남다른 증류소주·와인
소중한 분께 품격 선물하세요”

하이트진로는 2023년 계묘년 설을 맞이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슈퍼 프리미엄 증류소주와 프리미엄 와인을 추천한다.

‘진로 1924 헤리티지’는 하이트진로의 99년 역사와 전통성을 담은 제품으로 원료부터 차별화했다. 국내 최고 품질의 임금님표 이천쌀만 100% 사용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양조 기술력으로 최상의 맛을 구현했다. 총 3번의 증류를 거쳐 최고 순도의 정수만을 담아냈다. 30도의 알코올 도수가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목넘김과 깨끗한 향이 특징이다.

선물세트는 황금 두꺼비로 한국 소주의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살린 고급스러운 패키지를 자랑한다. 진로 1924 헤리티지 선물세트는 제품 1병(700ml)과 잔 2개로 구성돼 있다.

하이트진로의 대표 브랜드 ‘진로’의 이름을 내건 첫 프리미엄 와인 ‘진로 레드 와인(JINRO RED WINE)’도 설 선물로 제격이다.

시칠리아의 최고, 최대 와이너리로 손꼽히는 7대째 가족경영 와이너리인 ‘카를로 펠리그리노’와 함께 프리미엄급 와인을 공동 개발했다. 새롭게 출시한 ‘진로 레드 와인’은 시칠리아 와이너리와와의 논의 끝에 와인을 어려워하는 한국 소비자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숙한 이미지의 두꺼비 캐릭터와 ‘진로’ 브랜드 이름을 적용했다.

특히, 포도를 자연에서 말리듯이 늦게 수확하는 ‘선드라이 방식’을 적용해 풍부하고 진한 과일향과 긴 여운을 강조한 맛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I LG생활건강 I 화장품 선물세트

“새해엔 꿀피부 만들어볼까”
브랜드·구성, 선택 폭 다양

LG생활건강의 자연주의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 200년 전통의 블렌딩 포물러를 피부로 전달하는 ‘더테라피 비건 블렌딩 크림 기획세트’를 선보였다.

비건 블렌딩 크림 기획세트는 젤 크림과 소프트 유화 크림을 직접 블렌딩해 사용하는 ‘비건 블렌딩 크림(60ml)’, 리필 사용 시 플라스틱을 약 87% 절감할 수 있는 ‘비건 블렌딩 크림 리필(60ml)’, 피부 보습을 채워주는 ‘비건 블렌딩 토너(32ml)’와 ‘비건 블렌딩 크림(10ml)’이 추가로 구성됐다.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벨머’는 피부 밸런스 케어를 통해 민감해진 피부 진정과 손상 보호를 돕는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시카 기초 2종 세트’를 선보였다.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시카 토너와 에멀전으로 구성된 2종 세트는 피부 밸런스 케어를 도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시카 밸런싱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킨 릴리프 뷰티 브랜드 ‘비온드’는 포근한 마스크향과 진한 보습력으로 환절기 지친 피부를 케어해 줄 ‘비온드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 스페셜 기획 세트’를 선보였다. ‘비온드 딥 모이스처 라인’은 비온드 클린뷰티 연구소에서 개발한 ‘스킨미믹세라 마이드 콤플렉스’가 함유돼 피부 장벽부터 튼튼하게 피부를 보호한다.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은 깊고 풍부한 보습이 건강한 바디피부를 완성해주는 Deep 3 보습 케어로 오랜시간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바디 에멀전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명절 선물 대명사… 참치·캔햄 등 실속 ‘가득’

마시마로 음료와 함께 새해 산뜻한 출발 ‘깡충’

I 사조대림 I 사조 설 선물세트

종합식품기업 사조대림이 다양한 콘셉트별 ‘2023 사조 설 선물세트’ 85여종을 선보인다.

사조의 ESG경영 실천 의지와 함께 높아진 물가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가게 여건, 선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 친환경, 실용과 실속 그리고 프리미엄 콘셉트로 기획했다. 1만900원대 가성비 제품부터 프리미엄 참치, 사조참치 안심파게, 고급유, 안심팜 등 꾸집한 구성의제품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다양화했다.

사조대림은 2021년 추석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한 ‘안심팜’을 친환경 선물세트로 선보인 바 있다. 올해도 이러한 친환경 기조를 이어간다. 뚜껑없는 캔햄을 적용한 선물세트 판매로 절감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41톤에 달한다.

또한 참치, 캔햄, 식용유 등 사조의 대표 제품들과 함께 다양하고 실용적인 제품들로 구성된 복합구성 선물세트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인다. 매년 명절, 유용하고 실용적인 구성

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안심팜’ 선물세트, 그 중 합리적인 가격과 짙은 구성이 특징인 안심팜 22호와 안심팜 88호, 고급유 3호가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인기를 끌었던 프리미엄 선물세트 5종의 경우 올해 설 준비수량을 늘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리미엄 선물세트 5종은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사조참치의 상위라인업인 ‘생생참치’와 ‘프리미엄 통살참치’로 구성된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I 엔제리너스 I 마시마로 시즌음료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출시한 시즌 제품이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엔제리너스가 올해 선보인 시즌 제품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해 토끼 캐릭터인 ‘마시마로’와 협업해 ▲마시마로 딸기주스 ▲마시마로 쫄면베리라떼 ▲마시마로 트리플베리주스 등 음료 3종과 ▲마시마로 캐롯초콜릿캐슬 ‘디저트 1종이며,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해 신선함이 특징인 제품이다.

귀여운 캐릭터와 화려한 비주얼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은 이번 시즌 제품은 출시 이후 일주일간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6% 이상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매출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마시마로 쫄면베리라떼’는 우유의 부드러운 맛과 쫄면한 찹쌀떡, 신선한 딸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아메리카노·카페라떼와 함께 엔제리너스 음료 제품 판매량 톱3에 등극할 만큼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출시한 한정판 굿즈 상품(인



형 및 스텝캡)은 성황리에 판매되어 2차 제작 및 판매 중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계묘년 맞이 토끼 캐릭터 마시마로와 협업을 통해 맛있는 제품과 더불어 추억 회상·즐거움 등 다양한 경험을 함께 제공해 고객들의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I 종근당 I 벤포벨 에스



명절에 쌓인 육체 피로 활성비타민 한 알로 싹~

종근당은 활성비타민 ‘벤포벨 에스’를 이번 설선물로 추천한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말초신경병증 치료 성분 메코발라민과 간기능 개선 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60mg을 동시에 함유한 고효량 활성비타민이다.

이번에 출시한 벤포벨 에스는 기존 제품 대비 비타민 B군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육체피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손상된 신경세포를 재생해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데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던 메코발라민 성분을 500μg 추가하고,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 100mg 외에도 뇌혈관장벽을 통과해 뇌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스벤티아민 30mg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약물로 알려진 우르소데옥시콜산의 함량을 비타민 표준제조기준 최대인 60mg으로 높이고 타우린, 메티오닌, 오르티산 등도 함유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육체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근당 관계자는 “벤포벨 에스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영양불균형 등으로 현대인들에게 걸립되기 쉬운 비타민 B군과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하루 한 알로 보충해주는 제품”이라면서 “성분과 함량을 강화해 피로회복 효과를 극대화 벤포벨 에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효량 활성비타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I 롯데칠성음료 I 델몬트주스 선물세트

“온가족 사랑하는 주스로 감사의 마음 전해보세요”

롯데칠성음료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델몬트주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감사의 마음과 정을 담은 실속 있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델몬트주스 제품 총 7종이다.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 없는 8000원부터 1만원대의 중저가로 구성했다.

델몬트 1.5L 페트병 선물세트는 ‘애정(愛情)’, ‘감사(感謝)’라는 한자 속에 과일 이미지를 넣은 한국 전통의 맛을 담은 패키지로 꾸며졌다. ‘포도·매실·제주감귤’ 4본입의 애정 세트, ‘오렌지·포도·망고’ 3본입의 감사 세트, ‘감귤·매실·잔치집식혜’ 3본입으로 구성된 세트를 포함해 총 3종으로 구성됐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 주스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180mL 소병 제품을 12개씩 담았다. ‘오렌지·포도 세트’, ‘오렌지·토마토 세트’, ‘감귤·포도·토마토 세트’ 등 총 3종이다. 롯데칠성음료는 1980~1990년대 냉장고 한 편을 지키며 물병으로도 활용된 ‘델몬트 오렌지주스 100’ 2L 제품을 250mL로 축소한 미니병 5개와 변온컵이 포함된 ‘델몬트 미니병 명절 기획팩’도 함께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감사의 마음과 정을 담은 ‘델몬트주스 선물세트’로 더욱 뜻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I 롯데홈쇼핑 I 설 마음 한 상 특집전



한우·전기식·주방용품 등 설 인기상품 쇼핑 한 번에

롯데홈쇼핑은 18일까지 해외 브랜드 주방용품, 고품질 먹거리 등 최근 명절 트렌드를 고려한 인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설 마음 한 상’ 특집전을 진행한다.

TV홈쇼핑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을 콘셉트로 프리미엄 상품만을 선별한 명절 특집 방송 ‘퀴진 드 살룻’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부터 명절 인기상품, 국내산 식재료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명절 준비를 일찌감치 하는 얼리버드족이 느끼는 점을 고려해 2일부터 ‘설 마음 한 상’ 행사를 진행 중이다. 육류 위주로 편성한 행사 첫 주차에 완판 행진이 이어졌고 2주차에는 한우, 청과, 식재료 등 차례 준비에 필요한 명절 필수 상품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식품&리빙 프로그램 최유라쇼는 오는 14일 이번 명절을 위해 1년간 기획한 글로벌 식품 브랜드, 프리미엄 주방용품 등을 소개하는 특별한 설 특집방송을 준비했다. 15일에는 1++등급 한우 인기 부위만 선별한 황성축협한우 정육세트를 판매한다. 17일에는 겨울철 건강관리와 명절선물세트로 좋은 건강식품을 판매한다.

티커머스 채널 ‘롯데원티비’는 가족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을 선보이며 최대 30%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18일부터 3일간 서울 지역 한정 퀵배송 기획전도 진행한다. 모바일TV 엘라이브는 명절 반찬을 비롯해 예가 유아동 한복 등 유아동 선물 상품도 소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와인·여행·골드바까지… 트렌드 상품 ‘총집합’

갱년기 여성케어에 꼭 필요한 성분만 ‘가득’

I GS25 I 설 선물상품 850여 종

GS25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약 850여 종의 명절 선물 상품을 준비했다. 사전 예약 구매 혜택을 강화하고, 상품 구색을 다양화한 것도 특징이다.

2023년 설 선물세트의 최고가 상품은 900만원의 컬트 와인 ‘샤프르팽2014’이다. 컬트와인은 숭배를 뜻하는 라틴어 컬트에서 유래한 말로 소량 생산되는 고품질 와인을 의미한다. 샤프르팽은 이런 컬트 와인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와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인기 위스키와 프리미엄 코냑도 준비했다. ▲달모어25년 ▲부나하넨25년 ▲발렌타인30년 등의 위스키와 ▲테세루코냐트레조르 ▲테세루코냐LotNO.29 등의 코냑이 대표 상품이다.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계묘년을 맞아 황금토끼 골드바와 황금토끼 코인도 선보인다.

위드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여행 수요에 맞춰 ‘사이판 월드리조트’,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위티피아패키지’, ‘제주 살기’ 설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이번 설에도 제주살기 여행 상품을 다양한 일정으로 마련했다. 지난 추석 제



주살기 여행상품은 중장년층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30여 건이 주문 접수됐다.

GS25 관계자는 “최근 소비 트렌드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GS25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사전 예약 혜택을 통해 명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I 유한양행 I 유한 백수오 로얄

유한양행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유한 백수오 로얄’을 이번 설 선물로 추천한다.

주성분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초로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캐나다 보건부, 유럽식품안전국 등 전세계 7개국에서 원료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유한 백수오 로얄’은 여성 갱년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백수오 성분을



뿐만 아니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마리놀렌산,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1·B2,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등 총 8가지 복합성분 조합으로 여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해 갱년기 이후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제품이다.

특히 그간 시장에 출시됐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과는 달리 독자적인 검증 프로세스 ‘30 베리파이드 프로세스’를 통해 원료, 기능성 원료, 제품까지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차별화된 안전성과 기능성을 더욱 견고히 확보했다. 불필요한 합성첨가물 등은 일체 넣지 않고 안전한 갱년기 케어를 위해 꼭 필요한 성분들만 담아,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들이 안전하게 갱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료라고 생각해 제품을 시장에 다시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라이프]
소포장 식재료
1인가구에
집밥 선물
L1

metro[®]

Life

[설 선물 특집]
가성비·프리미엄
환경 생각한
착한선물 '짬'
L4



새해 결심이 술 끊기?... “금주는 위험해”



안 상 미 기자

Why, wine 180

약간의 수분 부족이나 잠을 깊이 못자는 것은 기본이다. 안절부절할 기분이 들고, 떨림이나 메스꺼움에, 유독 한 기를 느낄 수도 있다.

이게 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라고?

진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금주라는 큰 결심을 했는데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술을 너무 안 마셔서다.

영국의 한 의사가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이 재뉴어리(Dry January)’, 우리식으로 풀자면 ‘1월은 술끊기’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1월 금주는 2011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새해 첫 한 달간 금주로 더 건강한 일 년을 살자는 취지였다. 물론



/더드링크비즈니스

전달인 12월에 송년과 크리스마스 등으로 술에 너무 절어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연구에 따르면 간은 과음 후 보통 4주에서 6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해독으로 빛나는 피부나 숙면을 경험하려면 한 달 이상, 즉 작심삼일 방식의 1월 금주가 아니라 2월, 또는 3월까지 기다려

야 한다.

위장병 전문의인 마이클 압스타인 박사는 말한다. 1월 금주가 간 건강에 좋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압스타인 박사는 “간은 많지 않은 일정량의 알코올은 어려움 없이 대사할 수 있다”며 “알코올을 처리하는 효소는 필

요할 때마다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코올을 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1월 한 달 동안 술을 톡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알코올 처리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금주보다 절주가 살 길이란 얘기다.

실천 측면에서도 절주가 지속가능성이 높다.

실제 주류 관련 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1월 금주’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35%가 첫 주에 바로 술을 입에 대 실패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엔 ‘드라이 재뉴어리’를 제치고 더 유행하는게 있다. 이른바 ‘덤프 재뉴어리(Damp January)’. 틱톡에서 해시태그 ‘#dampjanuary’는 단숨에 3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히트를 쳤다.

덤프는 축축하단 뜻이다. 술은 줄이지만 몇 잔은 즐기면서 알콜로 ‘축축한 1월’을 만들자는 시도다.

글로벌 대표 와인업인 비비노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는 ‘1월 금주’를 계획한 이들은 5%에 불과한 반면 30%에 가까운 이들이 ‘축축한 1월’로 방향을 잡았다.

그럼 절제하는 ‘축축한 1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할 터. 사람마다 편차가 크겠지만 평균치로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4잔,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7잔이다.

압스타인 박사는 밤이든 안주든 음식을 곁들여 술을 마시는 것이 공복에 마시는 것 대비 혈중 알콜 농도를 크게 낮춘다고 말했다. 평소 식사와 함께 하는 와인 한 두잔까지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자, 이제 해결됐다. 올해도 언제, 어디서든 와인 한 잔을 훌쩍거릴 수 있는 든든한 핑계가 생겼다.

/smahn1@metroseoul.co.kr

NARA
CELLAR

자료 협조



주말은 책과 함께

선두주자만이 승자는 아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을 재밌게 봐서 원작 소설을 읽고 있다. 맘에 드는 글귀를 따로 메모해 두는데 며칠 전 “세상에 충분한 건 없다. 가다가 멈추니 그런 것이지. 만족이란 포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일 뿐이다. 명심해”라는 대사를 글에서 건져 올렸다.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 회장이 한 말이다. 필자는 거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재벌이 되려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옛그제 책장에 꽂힌 책등의 제목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순양의 진양철 회장이 이 책을 손주 진도준(극중 주인공)이 읽고 있는 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쓴 에세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우승자의 이야기가 아닌 폐막식 전 남자 마라톤에서 하위권에 든 선수들의 이야기였다.

뒤에서 열한 번째(?)로 들어온 동티모르 선수가 코스타는 ‘모두 나와 함께 기쁨을 만끽해요!’라고 말하는 듯 결승선에 들어올 때 관중을 향해



승리보다 소중한 것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하연수 옮김/문학수첩

양손을 크게 벌렸다고 하루키는 회상한다. 이젠 각 독립한 국가의 선수로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뒀던 그에게 관중들은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루키는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 선두로 골인한 선수만이 승자가 아님을 실감한다”며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고,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340쪽,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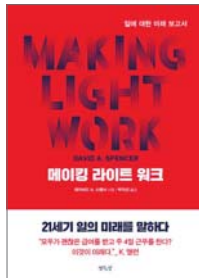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

메이킹 라이트 워크

데이비드 A. 스펜서 지음/박지선 옮김/생각의창

영국 리즈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저자 데이비드 A. 스펜서는 일부 사람들만 질 높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하찮은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스펜서 교수는 일터를 모든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당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제를 제시한다. 저자는 주 4일 근무제는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감소를 촉진하는 것을 뛰어넘어 성평등과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296쪽, 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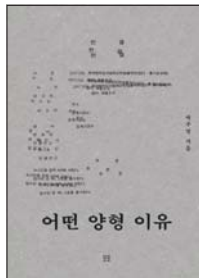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모로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가 실린다.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메마른 문장으로 가득한 냉혹한 판결문에서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

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비참한 현실과 인간의 고통이 철철 흐르는 저자의 판결문이 감동과 희망을 주는 건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서다. 296쪽, 1만7000원.



공정과 경쟁의 장

정해관 지음/박영사

WTO 분쟁해결규정(DSU)은 분쟁을 개시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소송법이다. 국내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실제 권리의무보다도 소송법상의 절차를 잘 알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저자는 WTO 협정상의 권

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쟁해결규정과 관행에 정통해야만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고 절차상의 모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유리한 판정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WTO 분쟁해결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낸 책. 420쪽, 2만8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유럽축구 이적전문가 “조규성에 3개 구단 오퍼…최대 67억원”
▲‘지단 무시·성추행 의혹’…프랑스축구협회장 사임 /사진 뉴시스

▲감독 없는 흥국생명, 김연경 선발 복귀에도 현대건설에 석패
▲빅토르 안,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면접 응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아시아선수권 오늘 개막 /사진 뉴시스
▲정다운 7년 만의 UFC 첫 패배 후 재기전 준비 시작